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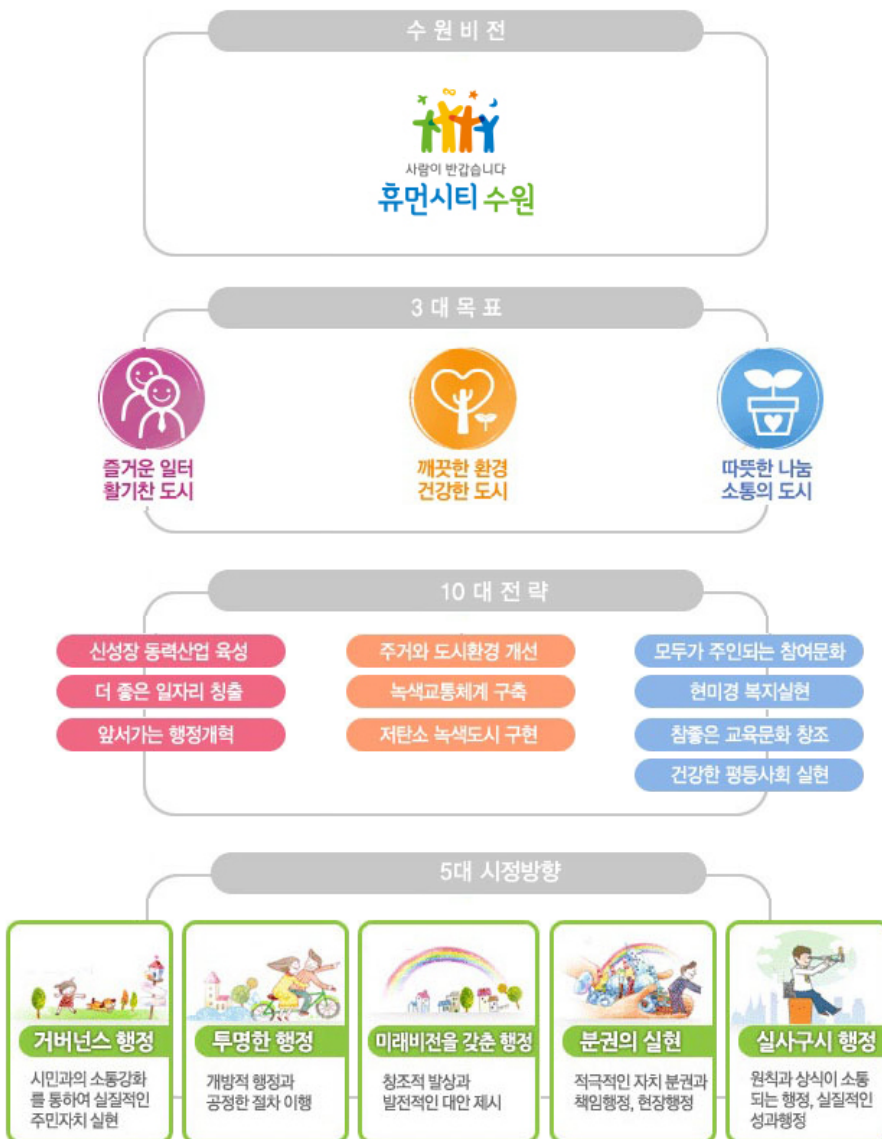


I. 서론	1
1. 수원시 현황	1
2. 수원시 장애인복지 현황	9
II. 수원시민의 장애인식 조사 결과	13
1. 조사개요	13
2. 분석결과	15
III. 조사결과 요약 및 제언	57
1. 조사결과 요약	57
2. 제언	65
부록	67
수원시민 장애인식조사 설문지	69
장애인분과 위원 명단	78
참여 연구진	78

I. 서 론

1. 수원시 현황

1) 수원시 시정방향



○ 자료 : 수원시 홈페이지(<http://www.suwon.go.kr/>) 참조 연구자 재작성

(1) 즐거운 일터, 활기찬 도시 전략

① 신성장 동력 산업 육성

- 민선5기 수원시정은 미래성장 및 발전 동력인 IT, BT, NT, CT 등 첨단산업 중심도시를 지향하고자 함.
- 수원산업단지와 광교테크노 밸리, 첨단 산업 단지 등 전략적 경쟁우위 요인들을 적극 활용하여 신성장 유망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지원하고,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상생협력을 통해 기업을 유치하고, 공동의 경제 활성화를 모색할 것임.
- 또한 세계문화유산 화성을 우리지역 기업의 우수한 상품과 연계하여 관광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부흥시키고자 함. 이와 같은 지역의 미래경제 발전방안은 화성·오산 지역과 통합적 경제 공동체 구축을 통해 효과를 극대화시킬 것임.

② 더 좋은 일자리 창출

- 민선 5기 수원시정은 청년들과 일자리가 없는 시민들, 전통시장, 구도심 골목상권 등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가족에게 웃음을 되찾아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임.
- 청년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역과 함께 하는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보급하여 수원에서 창업의 열정과 도전이 결실을 맺도록 할 것임.
- 또한 점차 황폐화되고 있는 구도심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소극적으로 보호하는 정책이 아닌 문화 접목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 상생하고 미래를 공유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임.

③ 앞서가는 행정개혁

- 21세기 행정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실행하는 도움 행정이어야 함. 지금까지 시민위에 군림하는 행정의 폐단을 말끔히 씻고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정부가 되어야함.

- 이를 위해 공직에 요구되는 청렴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체제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 공직뿐만 아니라 공기업과 산하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을 위한 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임.
- 책상에서 이루어지는 행정, 듣는 행정이 아니라 시민들의 생활현장에 달려가는 행정, 실천하는 행정을 구현할 것임. 이와 같은 행정개혁 구현의 수단은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도 실현될 수 있도록 할 것임.

(2) 깨끗한 환경, 건강한 도시 전략

① 주거와 도시환경 개선

- 지금까지 관(官), 기업주도로 이루어진 토목·건설 위주의 도시개발에서 탈피하여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시민들이 참여하는 도시재생을 실현할 것임. 외형적 도시개발이 아닌 사람중심 도시재생, 시민이 행복하고 문화가 있는 도시로 설계하고자 함.
- 개발의 혜택이 몇몇 사람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한 삶을 위해 투자될 수 있도록 할 것임. 또한 아토피와 같은 도시형 질병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만들기에 투자함으로써 엄마와 아이들이 웃는 도시를 만들어 갈 것임.

② 녹색교통 체계 구축

- 시민들이 불편해 하고, 시민들의 오랜 걱정거리인 도시 교통체계를 대중교통중심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도시를 오염시키는 교통수단을 친환경교통수단으로 대체 함으로써 녹색교통체계를 구축할 것임.
- 시민들이 이동하는데 편리하고, 즐거운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할 것임. 또한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교통체계 구축과, 도시의 환경을 고려하는 녹색교통수단을 활성화함으로써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를 추진할 것임.

③ 저탄소 녹색도시 구현

- 민선 5기 수원시정은 말뿐인 허울 좋은 저탄소 녹색성장이 아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저탄소 녹색도시를 구현할 것임.
- 순환, 건강, 자립이라는 가치에 기반하여 시민, 행정, 기업 등 사회구성원 모두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환경보전, 경제활력, 사회적 형평을 실현함으로써 세계의 환경수도로 거듭날 것임.

(3) 따뜻한 나눔, 소통의 도시 전략

① 모두가 주인되는 참여문화

- 지금까지 주민을 위한, 주민이 참여하는 지방자치는 구호에 그쳤고, 시민들은 시정의 방관자 위치에 있었음.
- 민선5기는 시민들이 시정의 주인이 되어 적극적으로 시정에 참여하고, 시정을 평가하고, 함께 시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체계를 구축할 것임.
- 시민들이 정책을 제안하고, 예산을 수립하며, 적극적으로 정책집행에 참여하여 함께 실행하는, 시민들이 수원이라는 마을을 만드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임. 시민들이 더 이상 수동적인 방관자가 아니라 주인이고, 행복한 수원시 도시 디자이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갈 것임.

② 현미경 복지 실현

- 지역사회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촘촘한 복지망(welfare-network)을 구축할 것임.

- 누구나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맞춤형 휴먼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민, 기업, 행정이 협력하여 지역사회복지의 양적확대 뿐만 아니라 질적 향상을 추진함으로써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을 만들어 나갈 것임.
- 또한 아이들이 절망하지 않고,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통해 수원의 미래를 준비해 나갈 것임.

③ 참좋은 교육문화 창조

- 수원의 아이들이 활기차고, 미래를 향한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는 도시, 즐거움과 웃음이 넘쳐 학교에 더 오래 머무르고 싶은 도시, 그리고 건강하고 건전하게 자랄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것임.
- 또한 수원의 문화 정체성(culture identity)이 제 자리를 찾고, 문화의 향기가 지역 곳곳에 번져나는 도시, 사람과 문화가 어우러진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을 건설할 것임.

④ 건강한 평등사회 실현

- 남성, 여성이라는 차이에 의해 차별받지 않고, 다양성과 차이가 존중되고 여성이 일할 권리와 참여의 기회가 제공되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휴먼휴먼시티를 구현할 것임.
-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공공이 책임지고,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사회구성원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사업을 추진할 것임.

2) 수원시 지리적 현황

- 수원은 우리나라의 중간쯤에 위치하며, 경기도의 도청 소재지임. 지형은 동북에서 서남 방면으로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시가지 중앙에 해발 143미터의 팔달산, 북쪽에는 광교산, 서쪽에는 여기산이 병

풍처럼 이어져 내려오고, 남부는 평야를 이루고 있음 서쪽에는 조선시대 정조 때 인공으로 축조한 저수지인 서호가 자리 잡고 있으며 그밖에 8개의 저수지가 있음 수원에는 큰 강이 없는 반면에 작은 하천이 여러 줄기 흐르고 있고, 이들 하천은 광교산 줄기에서 발원하여 먼내, 오목천, 장지천, 황구지천, 수원천 등으로 연결되고 그 중 수원천은 도심을 통과하고 있음

- 수원시의 전체 면적은 121.19km²로서 경기도 전체 면적의 100분의 1을 약간 상회하는 면적이며 전국 면적과 비교해 보면 약 1,000분의 1이 넘는다. 또한, 이를 토지이용 지목별 분포사항을 보면 전답 등 농지가 22.0%인 26.66km², 대지가 22.1%인 26.75km²와 임야가 24.9%인 30.06km²이며 기타가 31.0%인 37.54km²임
- 수원시는 경기도의 중남부에 위치하고, 동쪽은 용인시 수지구, 기흥구에, 서쪽은 안산시와 화성시 매송면, 남쪽은 화성시 태안읍과 북쪽으로 의왕시에 접해 있고, 경기도 행정,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서 주요 도시 간 거리는 서울이 33km, 인천 40km, 안양 15km, 성남 23km임. 또한, 남단의 극점은 대왕교동이고 북단의 극점은 상광교동으로 남북간 거리는 13.9km를 이룸. 한편, 시청소재지는 동경 127도 02분이고, 북위 37도 16분의 위치로서 행정구역상 수원시 팔달구 동서로 265(인계동 1111번지)임¹⁾.

<표 1-1> 수원시의 4극

시청소재지	단	경도와 위도의 극점		연장거리
		지 명	극 점	
동경127° 02′	동 단	팔달구 하동	동경 127° 05′	동서간 14.3km
	서 단	권선구 금곡동	동경 126° 56′	
북위 37° 16′	남 단	권선구 대왕교동	북위 37° 13′	남북간 13.9km
	북 단	장안구 상광교동	북위 37° 21′	

※ 자료 : 수원시청 홈페이지

1) 수원시(2009). 2020년 수원도시기본계획. 자료 참조.

- 수원시의 행정구역으로는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의 4개 구에 총 39개의동이 있음 그리고 행정권역별 면적은 장안구가 33.105km²로 27.4%를 차지하고 권선구가 39.1%인 47.369km², 팔달구가 10.8%인 13.079km², 영통구가 22.7%인 27.457km²이며 구별 토지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1-2> 토지구성별·지역별 현황

(단위 : km²)

구별	총면적	전	답	대지	임야	기타
계	121.010	10.207	16.457	26.750	30.057	37.539
장안구	33.105	1.689	1.245	6.639	15.663	7.869
권선구	47.369	6.097	11.949	8.161	5.710	15.452
팔달구	13.079	0.447	0.348	6.512	1.351	4.421
영통구	27.457	1.974	2.915	5.438	7.333	9.797

※ 자료 : 수원시청 홈페이지

3) 수원시 인구사회학적 현황

- 수원시의 인구는 2010년 1월 현재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412,253세대 1,104,681명으로 전년대비 0.57% 증가하였음. 인구 구성의 성비를 보면 남자 556,876명, 여자 547,805명으로 남자가 조금 많음.

<표 1-3 > 수원시 연도별 인구 및 가구 현황

연도별	세 대 1) (가구)	인 구			인구밀도 (명/km ²)	전년대비증가 (%)
		계	남	여		
2010	412,253	1,104,681	556,876	547,805	9,129	0.57

자료 : 『인구주택총조사』통계청, 『주민등록인구통계』경기도, 정보통신과

주 : 1) 외국인 세대수 제외(1998년부터 적용)

○ 인구이동

<표 1-6> 남녀기준

구분	전 입			전 출		
	계	남	여	계	남	여
2010.1.1	15,586	7,752	7,834	16,759	8,531	8,228
장 안 구	3,904	1,921	1,983	4,221	2,187	2,034
권 선 구	4,293	2,154	2,139	4,890	2,474	2,416
팔 달 구	3,457	1,739	1,718	3,580	1,793	1,787
영 통 구	3,932	1,938	1,994	4,068	2,077	1,991

※ 자료 : 수원시청 홈페이지(자치행정과 2010년 1월 1일 기준/단위 : 명)

<표 1-7> 도 기준

구분	전 입			전 출		
	계	도 내	도 외	계	도 내	도 외
2010. 1.1	15,586	10,842	4,744	16,759	12,857	3,902
장 안 구	3,904	2,791	1,113	4,221	3,063	1,158
권 선 구	4,293	3,122	1,171	4,890	3,885	1,005
팔 달 구	3,457	2,474	983	3,580	2,800	780
영 통 구	3,932	2,455	1,477	4,068	3,109	959

※ 자료 : 수원시청 홈페이지(자치행정과 2010년 1월 1일 기준/단위 : 명)

<표 1-8> 인구 동태

구분	출생	사망	혼인 (쌍)	이혼 (쌍)	비고
2010.1.1	947	346	905	278	
장 안 구	226	119	204	66	
권 선 구	250	102	205	79	
팔 달 구	167	68	174	62	
영 통 구	304	57	322	71	

※ 자료 : 수원시청 홈페이지(자치행정과 2010년 1월 1일 기준/단위 : 명)

<표 1-9> 등록 외국인 현황

구 분	중 국	미 국	일 본	베트남	독일	필리핀	영국	프랑스	대만	인도네시아	기타
2010.1.1	20,373	695	447	730	20	259	62	17	406	72	2,134
장안구	3,812	136	69	238	4	32	16	6	96	2	297
권선구	4,902	97	51	193	5	103	6	-	88	17	272
팔달구	9,092	111	58	115	1	45	13	2	157	12	235
영통구	2,567	351	269	184	10	79	27	9	65	41	1,330

※ 자료 : 수원시청 홈페이지(자치행정과 2010년 1월 1일 기준/단위 : 명)

2. 수원시 장애인복지 현황

○ 수원시 2012 년 장애인복지 예산

- 2012년 수원시 일반회계 예산총액 : 1,171,055,181 천원
- 2012년 수원시 장애인복지 예산액 (수원시 일반회계 예산의 2.44 %)

<표 1-10> 2012년 수원시 장애인복지 예산 내역

구 분	예 산 액	비 고
합 계	28,574,780	
국 고 보 조	10,411,058	
분 권 사 업	343,383	
도 비 보 조	5,125,669	
자 체 사 업	12,694,650	

○ 수원시 장애인 등록 현황

<표 1-11> 장애인 등록 현황

구 분	등록 장애인 수			장 안	권 선	팔 달	영 통
	계	남	여				
계	38,835	22,683	16,152	11,145	11,738	9,456	6,496
지체장애	20,863	12,364	8,499	5,944	6,459	5,026	3,434
뇌병변	4,372	2,479	1,893	1,307	1,277	1,040	748
시 각	4,059	2,511	1,548	1,147	1,166	1,074	672
청각언어	3,834	2,184	1,650	1,110	1,174	883	667
지 적	2,280	1,114	1,166	714	647	507	412
자폐성	311	261	50	93	85	52	81
정 신	1,175	621	554	289	341	381	164
신 장	1,025	562	463	299	293	273	160
심 장	153	94	59	37	48	35	33
호흡기	207	155	52	49	74	60	24
간	160	98	62	46	46	35	33
안 면	49	34	15	14	14	10	11
장 루	186	112	74	52	60	41	33
간 질	161	94	67	44	54	39	24

※ 자료 : 수원시 노인장애인과 (2011년1월1일 기준 / 단위:명)

○ 수원시 중증 장애인 현황

<표 1-12> 중증 장애인 현황

장애유형별	합계	1 급	2 급	3 급	비고
계	15,182	3,369	5,314	6,499	
간 장애	35	5	10	20	
간질 장애	65	2	12	51	
뇌병변 장애	3,285	1,143	1,079	1,063	
시각 장애	826	518	101	207	
신장 장애	831	55	774	2	
심장 장애	138	4	19	115	
안면 장애	25	1	9	15	
언어 장애	133	2	21	110	
자폐성 장애	324	169	106	49	
장루·요루 장애	14	0	1	13	
정신 장애	1168	55	440	673	
지적 장애	2333	600	821	912	
지체 장애	4322	581	1191	2550	
청각 장애	1490	189	684	617	
호흡기 장애	193	45	46	102	

※ 자료 : 수원시 노인장애인과 (2011년1월1일 기준 / 단위:명)

○ 장애인복지 단체현황

<표 1-13> 장애인복지 단체현황

단 체 명	단 체 명
계 (17 개 단체)	한국농아인협회 수원시지부
(사)수원시장장애인복지 단체연합회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수원시지부
한국신장장애인 경기협회 수원지부	한국장애인부모회 수원시지부
함께 가는 우리	부름의 전화
경기도참전유공장애인 협의회 수원시지회	한국장애인연맹경기 DPI 수원지회
경기도장애인복지회 수원시지부	내일을여는멋진여성 경기협회 수원시지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수원시지회	한국장애인교육문화협회 수원시지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수원시지회	한국장애인관광레저 진흥회 수원시지회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수원시지회	열린정보장애인협회 수원시팔달구지회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표 1-14>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단 체 명
수원 중증장애인 독립생활센터

○ 수원시 장애유형별 생활시설 현황

<표 1-15> 수원시 장애유형별 생활시설 현황

장애유형	시설명	정원	시설 소재지
지체장애인시설	사랑을 나누는집	12	장안구 영화동 408-14
지적장애인시설	수봉재활원	38	권선구 탑동 516-1
	바다의 별	60	장안구 이목동23-3

○ 수원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표 1-16>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구분	시설명	정원	시설 소재지
근로작업 시설	무궁화전자	150	팔달구 원천동 337-6
보호작업 시설	바다의 별 직업재활센터	34	장안구 이목동 23-3
	엘림작업활동시설	30	영통구 신동 486 엠파이어2 10동1-712호
	자혜직업재활센터	70	권선구 탑동 508-6
	구세군 장애인 재활작업장	15	팔달구 남창동 122-103
	한사랑 복지센터	10	장안구 정자동 73-10 정자종합상가 305호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경기도 장애인 생산품판매소	-	장안구 송죽동 272-41

○ 수원시 장애인 지역재활시설

<표 1-17> 장애인 지역재활시설

구분	시설명	정원	시설 소재지
종합복지관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	-	권선구 오목천동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	영통구 이의동
장애인주간 보호시설	오목천동장애인주간보호시설	30	권선구 오목천동
	정자동장애인주간보호시설	30	장안구 정자동
	북수원주간보호시설	15	장안구 파장동
	복지관 부설주간보호시설	15	영통구 이의동
	구세군장애인주간보호시설	15	권선구 서둔동
	수원중앙주간보호시설	15	팔달구 매교동
장애인단기보호시설	복지관 부설단기보호시설	15	영통구 이의동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원천그룹홈	4	영통구 원천동
	몬띠의 집	5	장안구 울전동
	미션홈	4	장안구 연무동
	미리암	4	장안구 조원동
	해밀터	4	장안구 정자동
	마르따의 집	4	장안구 천천동
	브솔그룹홈	4	영통구 이의동
	양념정	5	권선구 탑동
	에벤에셀의 집	8	권선구 세류동

Ⅱ. 수원시민의 장애인식 조사 결과

1. 조사개요

1) 조사의 추진배경 및 목적

수원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장애인분과에서는 “누구나 살고 싶은 무장애도시 수원” 2015 비전을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첫째, 장애인 인식개선을 통한 사회통합 환경조성, 둘째 장애인 차별금지 실천을 통한 인권 보장, 셋째 장애인 자기결정권을 통한 서비스 참여 확대의 3대 전략과제를 선정하였음.

3대 전략과제 중 무엇보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가장 기본이 되며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실천 첫해인 2012년에는 수원시민이 체감하고 있는 장애인 문제에 대한 관심도, 장애인 복지제도의 인식, 장애인 수용도 등을 포함한 지역 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전반적 인식 정도를 조사함으로써 향후 편견과 차별의 태도를 허물고 장애 없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 하였음.

2) 조사기간 및 조사대상 선정 방법

본 수원시민 장애인식조사는 공무원, 복지기관 종사자, 병의원 종사자, 통반장, 학교 종사자, 학생, 정치인 등 7개 직업군으로 나누어 약 1,200명을 대상으로 장애 인식 일반, 장애인 직업 및 고용, 장애인 편의시설 등에 대해 조사하였음. 이 7개의 직업군은 장애인분과회의시 위원간 논의를 통해 장애인이 지역 사회 활동을 하면서 많이 만날 수 있는 기관 종사자 및 장애인 복지 정책의 수립 및 실행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7개 직업군을 우선 선정하였음.

조사기간은 2012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조사하였으며, 조사방법은 장애인분과 위원이 속한 기관의 사업 영역별로 역할을 분담하여 병원, 복지기관, 동주민센터-구청-시청, 학교를 중심으로 직접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음.

3) 설문지 개발

2012년 제4차 장애인분과 회의(4.23)시 설문조사의 방향을 설정하고 조사하고자 하는 영역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음.

효율적인 설문지 개발을 위해 조사 영역별 위원을 추천하여 설문지 개발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였음. TF팀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해 조사영역별 세부 문항을 작성하여 1차 설문지를 개발하였으며, 제5차 장애인분과 회의(5.17)시 양희택 자문위원의 자문을 통해 설문지를 수정 보완함. 또한 제6차 장애인분과 회의(6. 20)시 최종 검토와 자문위원의 피드백을 통해 최종 설문지가 개발되었음.

4) 조사내용 및 구성 항목

조사내용은 네 부문으로 구성됨. 첫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성별, 연령, 가족 중 장애인 여부, 종교, 최종학력, 직업, 근무경력, 주거 형태, 자원봉사 경험을 파악함. 둘째, 장애인식 및 장애 관련 기본 인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장애인 접촉 여부, 도움 의향 및 도움 경험, 장애인 시설 건립 찬반, 장애인식 교육 시기 및 교육 방법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으며, 셋째, 장애인 직업재활 및 고용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에 대한 생각, 직업재활시설이 장애인 취업에 도움을 주는 정도, 장애인 취업을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해 조사함. 마지막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및 물리·사회적 환경을 파악하기 위하여 편의시설 구축 정도, 편의시설 이용 경험,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해결되어야 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조사함.

<표2-1> 조사내용

구 분	항 목
일반적 사항	성별, 연령, 가족 중 장애인 유무, 결혼, 종교, 최종학력, 직업, 근무경력, 주거형태, 자원봉사 경험
장애인식 및 장애 관련 일반적 사항	장애인 범주인지, 장애인 접촉경험, 접촉대상, 도움 줄 의향, 도움 준 경험, 장애인 관련 정보경로, 나 혹은 가족이 장애인과 함께 교육 받는 것, 단체생활 함께 하는 것, 결혼 할 의향, 인식개선 교육 필요성 정도, 인식개선 교육 경험 시기, 적절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시작 시기,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방법, 수원시 장애인 복지제도 수준, 수원시 장애인 복지제도 미흡 원인, 본 조사 후 장애인문제 관심 변화
장애인 직업재활 및 고용	사회참여, 장애인 직업능력에 대한 생각, 직업훈련이 취업에 도움을 주는 정도, 장애인 직장동료와 일하는 것에 대한 생각, 장애인 급여수준, 장애인 취업의 어려운 점, 장애인 고용확대 해결 과제, 수원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증축 의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장애인 취업에 도움을 주는 정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 및 장애인의무고용제 인지정도, 장애인생산품 구입 의사, 장애인 고용 의사
장애인 편의시설 및 물리적·사회적 환경	편의시설에 대한 생각, 장애인의 일상생활 중 가장 큰 어려움, 수원시 장애인 거주 환경, 수원의 장애인 편의시설 구축정도, 편의시설 이용 여부, 비장애인 편의시설 이용가능 범위, 편의시설 규칙 준수 여부, 장애인에게 가장 시급히 필요한 시설, 건물 신축 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지원금 있다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여부, 장애인 이동권 보장 우선 과제

5)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spss 18.0을 활용하였음. 구체적인 분석은 우선,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내용을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조사대상 집단 간의 서로 연관된 정도와 유의미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기대값과 실측값의 왜곡된 내용을 검증하기 위하여 카이제곱(X^2)검증을 실시하였음.

2. 분석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성별 분포는 남자(37.0%)보다 여자 (63.0%)의 비율이 높으며, 연령은 20대~40대에 주로 집중되어 있고 60세 이상(2.3%)의 설문참여자는 매우 적음. 가족구성원을 살펴보면, 자신 혹은 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보다 가족 중 장애인이 없다(84.0%)의 비율이 높았음. 결혼 여부는 기혼(56.3%)이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미혼(40.7%)이며, 종교는 무교(43.5%)가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개신교(23.7%), 불교(14.6%), 천주교(14.7%) 순으로 나타남. 최종학력은 대졸(61.6%)이 가장 많으며, 직업은 공무원(35.1%)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복지기관 종사자(16.0%), 학생(15.6%)순으로 나타남. 근무경력은 평균 10년(120개월)이었으며, 10년 이상(40.0%), 3년 이상~7년 미만(25.2%), 1년 이상~3년 미만(15.2%), 7년 이상~10년 미만(11.2%)순으로 나타났음. 주거형태는 자가(59.8%), 전세(28.8%) 순으로 나타났으며, 자원봉사는 경험하지 않은 사람(45.8%)보다 경험한 사람(54.2%)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이상과 같은 결과는 조사응답자가 수원시민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각각을 대표하는 응답결과라기보다는 일정부분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음. 즉, 최종학력은 대졸이 가장 많았으며, 성별은 여성이, 직업은 공무원의 비율이, 근무경력은 평균 10년이었으며, 10년 이상 근무경력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임. 따라서 본 조사결과는 조사 시행의 편의성이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조사응답자의 정규분포는 그 누구도 가정할 수 없기에 본 조사결과가 수원시민의 장애관련 인식을 어느 정도 대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표2-2> 조사대상자 일반적 사항

단위: 명(%)

항 목		빈도(백분율)	항 목			빈도(백분율)		
성별			최종학력					
	남자	443(37.0)		고졸(중퇴포함)이하			84(7.1)	
	여자	753(63.0)		고졸(중퇴포함)			225(19.1)	
	계	1196(100.0)		대졸(전문대, 중퇴포함)			725(61.6)	
연령				대학원이상			129(11.0)	
	19세 이하	95(8.0)		무학			13(1.1)	
	20-29세	295(24.7)		계			1176(100.0)	
	30-39세	303(25.4)	직업					
	40-49세	322(27.0)		공무원			419(35.1)	
	50-59세	150(12.6)		복지기관 종사자			191(16.0)	
	60세이상	27(2.3)		병의원 종사자			108(9.0)	
	계	1192(100.0)		학교 종사자			65(5.4)	
가족 중, 장애인 유무				학생			186(15.6)	
	자신이 장애인	45(3.8)		정치인			3(0.3)	
	가족 중, 장애인 있음	145(12.2)		통반장			60(5.0)	
	장애인 없음	995(84.0)		기타			163(13.6)	
	계	1185(100.0)		계			1195(100.0)	
결혼상태			주거형태					
	기혼	669(56.3)		자가			707(59.8)	
	미혼	484(40.7)		전세			340(28.8)	
	이혼 및 별거	20(1.7)		월세			90(7.6)	
	사별	9(0.8)		무상			13(1.1)	
	기타	7(0.6)		기타			32(2.7)	
	계	1189(100.0)		계			1182(100.0)	
종교			근무경력					
	개신교	283(23.7)		1년 미만			78(8.4)	
	불교	174(14.6)		1년 이상 3년 미만			142(15.2)	
	천주교	176(14.7)		3년 이상 7년 미만			235(25.2)	
	무교	520(43.5)		7년 이상 10년 미만			105(11.2)	
	기타	42(3.5)		10년 이상			374(40.0)	
	계	1195(100.0)		계			934(100.0)	
장애관련 자원봉사 경험			최 소	1개월	최대	648개월	평균 (SD)	120개월 (104.20)
	예	645(54.2)						
	아니오	546(45.8)						
	계	1191(100.0)						

조사대상자의 장애 관련 자원봉사 경험을 살펴보면, 연령별로는 20-39세에서 자원봉사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40-49세는 자원봉사 경험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남. 본인이 장애가 있거나 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 모두 자원봉사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기혼과 미혼에서도 모두 자원봉사 경험이 있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음. 종교별로는 개신교, 천주교, 불교의 순으로 자원봉사 경험 비율이 소폭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학력이 높을수록 자원봉사 경험 비율이 경험하지 못한 비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직업군별로는 학생과 통반장을 제외한 나머지 직업군에서 모두 자원봉사 경험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상과 같은 결과는 장애관련 자원봉사는 이제 대부분의 시민(국민)들에게 익숙한 경험이거나 최소한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임. 다만, 가장 왕성한 사회활동을 할 것으로 예측되는 40대에서 자원봉사 경험이 낮게 나타나고 있기에 자원봉사의 종류를 조금 더 세분하고 방법을 개발하여 이들 연령대에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표2-3> 일반적 사항별 장애 관련 자원봉사 경험

		자원봉사 경험		전체	χ ²
		예	아니오		
성별					
남자		252(56.9)	191(43.1)	443(100.0)	1.979
여자		393(52.7)	353(47.3)	746(100.0)	
연령					
19세 이하		24(25.3)	71(74.7)	95(100.0)	68.188***
20-29세		203(68.8)	92(31.2)	295(100.0)	
30-39세		173(57.7)	127(42.3)	300(100.0)	
40-49세		151(47.0)	170(53.0)	321(100.0)	
50-59세		83(55.3)	67(44.7)	150(100.0)	
60세이상		10(38.5)	16(61.5)	26(100.0)	
가족 중, 장애인 유무					
자신이 장애가 있다		27(60.0)	18(40.8)	45(100.0)	0.734
가족 구성원 중 장애인이 있다		80(55.2)	65(44.8)	145(100.0)	
장애인 없다		533(53.8)	458(46.2)	991(100.0)	
결혼상태					
기혼		341(51.2)	325(48.8)	666(100.0)	21.811
미혼		290(60.0)	193(40.0)	483(100.0)	
이혼 및 별거		5(25.0)	15(75.0)	20(100.0)	
사별		6(75.0)	2(25)	8(100.0)	
기타		1(14.3)	6(85.7)	7(100.0)	
종교					
개신교		179(63.5)	103(36.5)	282(100.0)	23.403***
불교		87(50.0)	87(50.0)	174(100.0)	
천주교		109(61.9)	67(38.1)	176(100.0)	
무교		252(48.8)	264(51.2)	516(100.0)	
기타		18(42.9)	24(57.1)	42(100.0)	
최종학력					
고졸(중퇴포함)이하		30(36.1)	53(63.9)	83(100.0)	36.479***
고졸(중퇴포함)		95(42.2)	130(57.8)	225(100.0)	
대졸(전문대, 중퇴포함)		426(59.1)	295(40.9)	721(100.0)	
대학원이상		83(64.3)	46(35.7)	129(100.0)	
무학		6(46.2)	7(53.8)	13(100.0)	
직업					
공무원		223(53.7)	192(46.3)	415(100.0)	81.326***
복지기관 종사자		144(75.4)	47(24.6)	191(100.0)	
병의원 종사자		74(68.5)	34(31.5)	108(100.0)	
학교 종사자		40(61.5)	25(38.5)	65(100.0)	
학생		72(38.7)	114(61.3)	186(100.0)	
정치인		2(66.7)	1(33.3)	3(100.0)	
통반장		28(47.5)	31(52.5)	59(100.0)	
기타		62(38.0)	101(62.0)	163(100.0)	

주1) *P<.5, ** P<.01 *** P<.001

2) 장애인식 및 장애 관련 기본 인식

(1) 장애인 범주 인지 정도

우리나라 장애인 범주에 대한 인지 정도 결과를 살펴보면, 15개 모두를 장애인 범주로 인지한 경우(42.4%)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48.5%)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별 장애인 범주 인지 정도를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장애인 범주 15개를 모두 인지하고 있는 비율이 4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20-39세에서 장애인 범주 15개 모두를 인지하고 있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장애인 범주를 모두 인지하는 있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조사응답자 자신이 장애인이거나 장애를 가진 가족 구성원 유무에 따른 장애인 범주 인지 정도에서는 모두 장애인 범주를 정확하게 인지한 비율보다 그렇지 않은 비율이 높게 나타남. 결혼 여부에 따른 인지 정도 차이는 그리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 종교별 인지 정도 차이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비율이 인지하고 있는 비율보다 소폭 높게 나타나고 있음. 직업군별로 인지 정도의 차이는 공무원, 복지기관 종사자, 병의원 종사자 즉, 장애(인)와 직, 간접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환경에 종사하고 영역에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음. 그리고 자원봉사 경험이 있는 경우 장애인 범주 15개 모두를 인지하고 있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상과 같은 결과는 조사 응답자들이 15개 장애범주를 모두 인식하는 비율이 일반 국민들의 인지정도에 비하여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기에 본 조사의 응답자들의 장애 인지적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추정됨. 또한, 본인이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가족구성원 중 장애인 여부가 장애 범주를 정확하게 인식하는데 영향을 주는 것 보다는 직, 간접적으로 장애(인)를 접촉하는 환경에 종사하는 직업이 장애범주를 정확하게 인지하는데 영향을 더 많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 본인이나 가족구성원에 대한 정확한 정보전달이나 인식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표2-4> 일반사항별 장애인 범주 인지 정도

단위: 명(%)

	항 목			계	X ²
	15개 모두	15개 미만	무응답		
전체	508(42.4)	581(48.5)	108(9.0)	1191(100.0)	
성별					
남자	186(42.2)	227(51.5)	28(6.3)	441(100.0)	6.629*
여자	322(42.8)	352(46.7)	79(10.5)	753(100.0)	
연령					
19세 이하	33(34.7)	52(54.7)	10(10.5)	95(100.0)	67.051***
20-29세	137(46.4)	132(44.7)	26(8.8)	295(100.0)	
30-39세	157(51.8)	127(41.9)	19(6.3)	303(100.0)	
40-49세	134(41.7)	169(52.6)	18(5.6)	321(100.0)	
50-59세	40(26.8)	83(55.7)	26(17.4)	149(100.0)	
60세 이상	3(11.1)	15(55.6)	9(33.3)	27(100.0)	
가족 중, 장애인 유무					
자신이 장애인	19(42.2)	20(44.4)	6(13.3)	45(100.0)	2.151
가족 중, 장애인 있음	58(40.0)	76(52.4)	11(7.6)	145(100.0)	
장애인 없음	426(42.9)	479(48.2)	88(8.9)	993(100.0)	
결혼상태					
기혼	270(40.9)	332(49.8)	65(9.7)	667(100.0)	-
미혼	227(46.9)	223(46.1)	34(7.0)	484(100.0)	
이혼 및 별거	5(25.0)	12(60.0)	3(15.0)	20(100.0)	
사별	2(22.2)	4(44.4)	3(33.3)	9(100.0)	
기타	1(14.3)	4(57.1)	2(28.6)	7(100.0)	
종교					
개신교	131(46.3)	135(47.7)	17(6.0)	283(100.0)	16.016*
불교	68(39.1)	85(48.9)	21(12.1)	174(100.0)	
천주교	71(40.3)	93(52.8)	12(6.8)	176(100.0)	
무교	222(42.9)	248(47.9)	48(9.3)	518(100.0)	
기타	16(38.1)	17(40.5)	9(21.4)	42(100.0)	
최종학력					
고졸 이하	24(28.6)	45(53.6)	15(17.9)	84(100.0)	53.919***
고졸(중퇴포함)	64(28.4)	126(56.0)	35(15.6)	225(100.0)	
대졸(전문대 포함)	346(47.8)	330(45.6)	48(6.6)	724(100.0)	
대학원 이상	65(50.8)	59(46.1)	4(3.1)	128(100.09)	
무학	5(38.5)	6(46.2)	2(15.4)	13(100.0)	
직업					
공무원	215(51.4)	182(43.5)	21(5.0)	418(100.0)	124.830**
복지기관 종사자	92(48.2)	84(44.0)	15(7.9)	191(100.0)	
병의원 종사자	52(48.6)	52(48.6)	3(2.8)	107(100.0)	
학교 종사자	24(36.9)	39(60.0)	2(3.1)	65(100.0)	
학생	71(38.2)	102(54.8)	13(7.0)	186(100.0)	
정치인	1(33.3)	1(33.3)	1(33.3)	3(100.0)	
통반장	10(16.7)	28(46.7)	22(36.7)	60(100.0)	
기타	43(26.4)	89(54.6)	31(19.0)	163(100.0)	
자원봉사 경험					
예	298(46.3)	303(47.0)	43(6.7)	644(100.0)	12.647**
아니오	208(36.2)	275(50.5)	62(11.3)	545(100.0)	

주1) *P<.05, ** P<.01 *** P<.001

주2) 셀의 빈도가 5미만인 경우가 20%이상이면 X²값을 제시하지 않음.

(2) 장애인 접촉 경험/접촉 경험의 경로(다중응답)

장애인 접촉 경험은 다소 있다(42.4%)가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자주 있다(31.9%), 거의 없다(23.4%)의 순으로 나타남. 결국, 조사응답자의 약 74%가 접촉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또한 장애인 접촉 경로는 주로 직장(36.1%), 봉사활동(24.6%), 주변 이웃이나 친구(23.4%)인 것으로 나타남.

이상과 같이 직장에서의 접촉 경험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결과 또한, 본 조사의 응답자들의 특성을 나타낸 결과라고 보임.

<표2-5> 장애인 접촉 경험/접촉 경험의 경로

항목		빈도(백분율)	평균(표준편차)	
장애인 접촉 경험				
	자주 있다	382(31.9)	1.96 (0.804)	
	다소 있다	507(42.4)		
	거의 없다	280(23.4)		
	전혀 없다	28(2.3)		
	계	1197(100.0)		
장애인 접촉 경험의 경로	예	아니오	계	
	가족이나 친척	156(13.1)	1039(86.9)	1195(100.0)
	주변 이웃이나 친구	279(23.4)	914(76.6)	1193(100.0)
	봉사활동	293(24.6)	899(75.4)	1192(100.0)
	실습	35(2.9)	1158(97.1)	1193(100.0)
	교육	77(6.5)	1115(93.5)	1192(100.0)
	직장	431(36.1)	762(63.9)	1193(100.0)
	기타	130(10.9)	1061(89.1)	1191(100.0)

장애인 접촉 경험을 조금 더 세분하여 살펴본 결과, 성별, 연령, 종교, 학력, 직업군 모두에서 장애인 접촉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다만, 응답 비율에 있어서 조금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즉, 접촉 경험 비율이 60%에서 90%로 상이하게 조사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의미하는 것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또한, 이미 전술하였듯이 접촉이 용이한 환경에서의 근무 여부가 비율의 높고 낮음을 결정하는 요소로 보임.

<표2-6> 일반사항별 장애인 접촉 경험

구분	장애인 접촉 경험				전체	X ²
	자주 있다	다소 있다	거의 없다	전혀 없다		
성별						5.109
남자	131(29.6)	200(45.1)	98(22.1)	14(3.2)	443(100.0)	
여자	251(33.4)	305(40.6)	181(24.1)	14(1.9)	751(100.0)	
연령						108.633** *
19세 이하	15(15.8)	31(32.6)	35(36.8)	14(14.7)	95(100.0)	
20-29세	79(26.9)	128(43.5)	84(28.6)	3(1.0)	294(100.0)	
30-39세	122(40.3)	119(39.3)	60(19.8)	2(0.7)	303(100.0)	
40-49세	109(34.0)	145(45.2)	63(19.6)	4(1.2)	321(100.0)	
50-59세	47(31.3)	70(46.7)	28(18.7)	5(3.3)	150(100.0)	
60세이상	7(25.9)	12(44.4)	8(29.6)	0(0.0)	27(100.0)	
종교						37.936***
개신교	117(41.3)	120(42.4)	46(16.3)	0(0.0)	283(100.0)	
불교	54(31.0)	72(41.4)	44(25.3)	4(2.3)	174(100.0)	
천주교	59(33.5)	74(42.0)	41(23.3)	2(1.1)	176(100.0)	
무교	139(26.8)	221(42.6)	140(27.0)	19(3.7)	519(100.0)	
기타	11(26.8)	18(43.9)	9(22.0)	3(7.3)	41(100.0)	
최종학력						
고졸 이하	19(22.9)	29(34.9)	26(31.3)	9(10.8)	83(100.0)	
고졸(중퇴포함)	56(24.9)	101(40.9)	59(26.2)	9(4.0)	225(100.0)	
대졸(전문대 포함)	231(31.9)	315(43.5)	171(23.6)	7(1.0)	724(100.0)	
대학원 이상	66(51.2)	51(39.5)	12(9.3)	0(0.0)	129(100.0)	
무학	2(31.9)	5(42.7)	6(46.2)	0(0.0)	13(100.0)	
직업						-
공무원	105(25.1)	200(47.7)	110(26.3)	4(1.0)	419(100.0)	
복지기관 종사자	104(54.7)	66(34.7)	20(10.5)	0(0.0)	190(100.0)	
병의원 종사자	50(46.3)	43(39.8)	15(13.9)	0(0.0)	108(100.0)	
학교 종사자	27(41.5)	26(40.0)	11(16.9)	1(1.5)	65(100.0)	
학생	30(16.1)	72(38.7)	70(37.6)	14(7.5)	186(100.0)	
정치인	0(0.0)	3(100.0)	0(0.0)	0(0.0)	3(100.0)	
통반장	18(30.0)	28(46.7)	12(20.0)	2(3.3)	60(100.0)	
기타	46(28.4)	67(41.4)	42(25.9)	7(4.3)	162(100.0)	

주1) *P<.05, ** P<.01 *** P<.001

주2) 셀의 빈도가 5미만인 경우가 20%이상이면 X²값을 제시하지 않음.

(3) 장애인에게 도움 줄 의향/ 도움 준 경험(다중응답)

장애인에게 도움 줄 의향이 있는지 분석한 결과, 도움을 줄 의향이 있다가 약 75%(적극 있다 18.0%, 있다 55.7%)로 나타남. 한편 장애인에게 도움 줄 의향이 있으나 방법을 모른다(25.5%)가 낮지 않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장애인에게 도움 준 경험에 대해 분석한 결과, 버스, 지하철, 기차와 같은 대중교통 이용 시 자리를 양보한 일(66.0%)이 과반수를 넘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모금이나 기부(47.3%), 휠체어를 밀어준 일(46.7%)의 순으로 나타남.

<표2-7> 장애인에게 도움 줄 의향/ 도움 준 경험(다중응답)

항목	빈도(백분율)	평균(표준편차)	
장애인에게 도움 줄 의향			
적극 있다	213(18.0)	2.09 (0.676)	
있다	660(55.7)		
있으나 방법을 모른다	302(25.5)		
없다	9(0.8)		
장애인에게 도움 준 경험	예	아니오	계
버스, 지하철, 기차 등에서 자리를 양보한 일	787(66.0)	405(34.0)	1192(100.0)
횡단보도나 계단 등에서 장애인의 손을 잡아준 일	321(26.9)	873(73.1)	1194(100.0)
휠체어를 밀어준 일	558(46.7)	638(53.3)	1196(100.0)
가사나 물건사기를 도와준 일	175(14.7)	1018(85.3)	1193(100.0)
목욕이나 몸을 돌봐준 일	177(14.8)	1019(85.2)	1196(100.0)
말동무 해준 일	386(32.3)	808(67.7)	1194(100.0)
수화나 글을 읽어주는 등의 봉사활동	78(6.5)	1118(93.5)	1196(100.0)
모금이나 기부	565(47.3)	629(52.7)	1194(100.0)
모금, 기부 이외의 금전적 원조	130(10.9)	1066(89.1)	1196(100.0)
기타	53(4.4)	1141(95.6)	1194(100.0)

직업군별로 장애인에게 도움 줄 의향이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학생을 제외한 모든 직업군에서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상과 같은 결과는 학생들에게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 학생들의 응답결과는 대체로 부정적인 응답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이들에 대한 접근이 절실함을 나타내고 있는 결과로 보임.

<표2-8> 직업별 장애인에게 도움 줄 의향

구분	장애인에게 도움 줄 의향				전체	χ ²
	적극 있다	있다	있으나 방법을 모른다	없다		
직업						-
공무원	49(11.7)	279(66.7)	90(21.5)	0(0.0)	418(100.0)	
복지기관 종사자	72(38.7)	99(53.2)	14(7.5)	1(0.5)	186(100.0)	
병의원 종사자	21(19.6)	69(64.5)	17(15.9)	0(0.0)	107(100.0)	
학교 종사자	19(29.7)	24(37.5)	21(32.8)	0(0.0)	64(100.0)	
학생	21(11.5)	69(37.7)	87(47.5)	6(3.3)	183(100.0)	
정치인	0(0.0)	2(66.6)	1(33.3)	0(0.0)	3(100.0)	
통반장	7(12.1)	34(58.6)	16(27.6)	1(1.7)	58(100.0)	
기타	23(14.3)	82(50.9)	55(34.2)	1(0.6)	161(100.0)	

(4) 장애인 시설 건립에 대한 의견/반대 이유

장애인 시설 건립에 대한 의견을 분석한 결과, 응답자 중 상당히 높은 비율(86.8%)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대하는 비율(13.2%)은 적었으나 그 이유는 불편해서(36.1%)가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부동산 시세가 떨어질 것 같아서(23.2%), 위험할 것 같아서(21.3%), 싫어서(16.1%)의 순으로 나타남.

<표2-9> 장애인 시설 건립에 대한 의견/반대 이유

장애인 시설 건립 의견	빈도(백분율)				
동의한다	1018(86.8)				
반대한다	155(13.2)				
반대 이유	불편해서	위험할 것 같아서	부동산 시세가 떨어질 것 같아서	싫어서	기타
	56(36.1)	33(21.3)	36(23.2)	25(16.1)	5(3.2)

장애인 시설 건립에 대한 의견이 장애인 접촉 경험에 따라 다른지 분석한 결과, 장애인 접촉 경험이 거의 없는 것보다 다소 혹은 자주 있는 경우 장애인 시설 건립에 동의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상과 같은 결과는 장애인 접촉 경험이 많을수록 장애인에 대한, 또는 장애인을 돕는 시설에 대한 거부감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는 결과임. 따라서 자원봉사, 인식개선 교육 등을 통한 접촉 경험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함.

<표2-10> 장애인 접촉 경험별 장애인 시설 건립 의견

구분	장애인 접촉 경험				계	X ²
	자주 있다	다소 있다	거의 없다	전혀 없다		
장애인 시설 건립 의견						
동의한다	353(34.7)	434(42.7)	213(20.9)	17(1.7)	1017(100.0)	44.715***
반대한다	24(15.5)	63(40.6)	58(37.4)	10(6.5)	155(100.0)	

직업군별 장애인 시설 건립 의견에 대해 분석한 결과, 모든 직업군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동의하는 비율이 80% 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이미 전체 동의비율이 86% 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에서도 확인하였던 결과임.

<표2-11> 직업별 장애인 시설 건립 의견

구분	장애인 시설 건립 의견		전체	X ²
	동의한다	반대한다		
직업				-
공무원	361(88.9)	45(11.1)	406(100.0)	
복지기관 종사자	174(93.0)	13(7.0)	187(100.0)	
병의원 종사자	91(85.0)	16(15.0)	107(100.0)	
학교 종사자	57(89.1)	7(10.9)	64(100.0)	
학생	151(81.6)	34(18.4)	185(100.0)	
정치인	2(100.0)	0(0.0)	2(100.0)	
통반장	47(81.0)	11(19.0)	58(100.0)	
기타	131(81.9)	29(18.1)	160(100.0)	

(5)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과 관련된 조사는 네 가지로 분류됨.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필요정도, 교육 받은 시기, 효과적인 교육 방법, 적절한 인식개선 교육 시기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는 것임.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필요정도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대부분(약 97%)이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은 시기는 교육을 전혀 받지 않았다(24.3%)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성인 교육(22.5%), 초등교육(20.6%), 대학교육(17.7%)의 순으로 나타남.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효과적인 교육방법은 장애체험(65.5%)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그 외 매스미디어(12.5%), 캠페인(10.3%)의 순으로 나타남. 적절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시기에 대한 결과, 주로 유치원 교육(42.9%), 초등교육(32.7%), 유치원 이전 교육(17.3%)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여 초등교육 이내 교육 받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상과 같은 결과로 장애 인식 교육은 대부분 필요함을 느끼며, 교육을 받을 시기로는 초등교육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효과적인 교육방법으로는 장애체험을 가장 높게 응답하고 있는데 이 방법의 효과성과 영향력에 대하여서는 장애인 당사자와 비장애인들의 의견이 나뉘고 있어서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표2-12>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필요정도/ 교육 받은 시기/ 효과적인 교육방법/ 적절한 교육 시기

항목	빈도(백분율)	항목	빈도(백분율)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필요정도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받은 시기	
매우 필요하다	537(45.2)	유치원 교육 및 그 이전	47(4.0)
어느 정도 필요하다	620(52.2)	초등교육	241(20.6)
필요하지 않다	16(1.3)	중등교육	129(11.0)
모르겠다	15(1.3)	대학교육	207(17.7)
계	1188(100.0)	성인교육(평생교육)	263(22.5)
장애인 인식개선의 효과적인 교육방법		전혀 받지 않았다	284(24.3)
장애체험	772(65.5)	계	1171(100.0)
이론교육	88(7.5)	적절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시기	
캠페인	122(10.3)	유치원 이전 교육	204(17.3)
모금활동	9(0.8)	유치원 교육	506(42.9)
책자발행	5(0.4)	초등교육	385(32.7)
매스미디어	147(12.5)	중등교육	46(3.9)
기타	36(3.1)	대학교육	13(1.1)
계	1179(100.0)	성인교육(평생교육)	25(2.1)
		계	1179(100.0)

연령별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받은 시기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연령대가 어릴수록 유치원 및 그 이전 혹은 초, 중등 교육 때 인식교육을 받은 것으로, 40대 이상의 경우에는 인식교육을 받지 않거나 성인교육(평생교육)때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이상과 같은 결과는 최근에 들어와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어린 연령대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하며, 성인 특히 40대 이상의 경우에는 성인교육을 통해 인식개선이 이루어지기에 성인교육 실시 때 올바른 장애인식 교육이 진행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한편, 19세 이하의 경우 이미 중등교육 이전에 인식개선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응답비율을 보이고 있음도 동시에 알 수 있음. 이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중등학교 이전까지의 인식개선 교육이 어느 정도 효과적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표2-13> 연령별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받은 시기

구분	항목						계	X ²
	유치원 교육 및 그 이전	초등 교육	중등 교육	대학 교육	성인교육 (평생교육)	전혀 받지 않았다		
연령								320.018***
19세 이하		51(54.8)	20(21.5)	1(1.1)	2(2.2)	10(10.8)	93(100.0)	
20-29세	12(4.1)	89(30.7)	43(14.8)	80(27.6)	19(6.6)	47(16.2)	290(100.0)	
30-39세	11(3.7)	45(15.1)	19(6.4)	82(27.5)	57(19.1)	84(28.2)	298(100.0)	
40-49세	10(3.2)	34(10.7)	27(8.5)	33(10.4)	115(36.3)	98(30.9)	317(100.0)	
50-59세	3(2.1)	18(12.6)	14(9.8)	11(7.7)	61(42.7)	36(25.2)	143(100.0)	
60세 이상	2(8.7)	4(17.4)	4(17.4)	0(0.0)	5(21.9)	8(34.8)	23(100.0)	

연령별 그리고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은 시기별로 적절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시기를 언제라고 생각하는지 교차분석 결과, 현 연령대, 교육을 받은 시기의 다름에 관계없이 모두 초등교육 내 까지 장애인식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음.

<표2-14> 연령별/인식개선 교육 받은 시기별 적절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시기

구분	항목						계	X ²
	유치원 교육 이전	유치원 교육	초등 교육	중등 교육	대학 교육	성인교육 (평생교육)		
연령								
19세 이하	13(14.0)	35(37.6)	34(36.6)	6(6.5)	2(2.2)	3(3.2)	93(100.0)	-
20-29세	60(20.6)	114(39.2)	93(32.0)	16(5.5)	4(1.4)	4(1.4)	291(100.0)	
30-39세	49(16.3)	131(43.5)	104(34.6)	6(2.0)	5(1.7)	6(2.0)	301(100.0)	
40-49세	61(19.2)	147(46.4)	95(30.0)	8(2.5)	0(0.0)	6(1.9)	317(100.0)	
50-59세	19(12.8)	66(44.6)	49(33.1)	8(5.4)	1(0.7)	5(3.4)	148(100.0)	
60세 이상	2(9.1)	9(40.9)	8(36.4)	2(9.1)	1(4.5)	0(0.0)	22(100.0)	
인식개선 교육 받은 시기								
유치원 교육 및 그 이전	23(48.9)	19(40.4)	3(6.4)	1(2.1)	1(2.1)	0(0.0)	47(100.0)	-
초등교육	37(15.5)	117(49.0)	74(31.0)	6(2.5)	3(1.3)	2(2)	239(100.0)	
중등교육	16(12.4)	58(45.0)	40(31.0)	10(7.8)	1(0.8)	4(3.1)	129(100.0)	
대학교육	39(19.0)	91(44.4)	59(28.8)	13(6.3)	1(0.5)	2(1.0)	205(100.0)	
성인교육 (평생교육)	39(15.0)	109(41.9)	95(36.5)	5(1.9)	5(1.9)	7(2.7)	260(100.0)	
전혀 받지 않았다	50(17.8)	107(38.1)	103(36.7)	9(3.2)	2(0.7)	10(3.6)	281(100.0)	

주1) *P<.05, ** P<.01 *** P<.001

주2) 셀의 빈도가 5미만인 경우가 20%이상이면 X²값을 제시하지 않음.

(6) 장애인과의 교육, 단체생활, 결혼에 대한 생각

장애인과 함께 교육 받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의 비율이 약 67%(적극 찬성한다 15.5%, 찬성한다 51.9%)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그저 그렇다(28.1%) 역시 낮지 않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장애인과 함께 단체생활(직장, 학교, 동아리활동, 사회활동 등) 하는 것에 대한 생각 역시 긍정적인 비율이 약 64%(아주 긍정적이다 12.6%, 긍정적이다 51.7%)로 높지만 보통이다(32.5%) 역시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장애인과 결혼 할 의향이 있는지 분석한 결과, 안한

다(28.8%), 다시 생각해 본다(23.7%)의 비율이 높고 결혼 한다가 2.4%, 상관없다가 11.9%로 함께 교육받거나 단체생활을 하는 것에 비해 부정적인 견해가 강한 것으로 나타남.

<표2-15> 장애인과의 교육, 단체생활, 결혼에 대한 생각

항목	빈도(백분율)
장애인과 함께 교육 받는 것에 대한 생각	
적극 찬성한다	184(15.5)
찬성한다	615(51.9)
그저 그렇다	333(28.1)
반대 한다	46(3.9)
적극 반대한다	6(0.5)
계	1184(100.0)
장애인과 함께 단체생활 하는 것에 대한 생각	
아주 긍정적이다	150(12.6)
긍정적이다	615(51.7)
보통이다	386(32.5)
부정적이다	30(2.5)
아주 부정적이다	8(0.7)
계	1189(100.0)
장애인과 결혼 할 의향	
기꺼이 한다	28(2.4)
다시 생각해 본다	279(23.7)
상관없다	140(11.9)
안한다	340(28.8)
절대 안한다	122(10.3)
모르겠다	270(22.9)
계	1179(100.0)

장애인 접촉 경험별로 함께 교육 받고 단체생활 하는 것에 대한 생각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장애인 접촉 경험이 있을수록(많을수록) 함께 교육받는 것과 단체생활 하는 것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상과 같은 조사결과는 장애인 접촉 경험이 많을수록 단체(교육 포함)구성원으로 받아드릴 비율이 높음을 나타내고 있음. 따라서 장애인 접촉 경험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표2-16> 장애인 접촉 경험별 함께 교육 받는 것에 대한 생각

구분	장애인 접촉 경험				계	평균 (표준편차)	χ^2
	자주 있다	다소 있다	거의 없다	전혀 없다			
적극 찬성한다	109(59.2)	56(30.4)	17(9.2)	2(1.1)	184(100.0)	3.78 (0.768)	-
찬성한다	206(33.5)	292(47.5)	112(18.2)	5(0.8)	615(100.0)		
그저 그렇다	54(16.2)	137(41.1)	129(38.7)	13(3.9)	333(100.0)		
반대 한다	10(21.7)	15(32.6)	15(32.6)	6(13.0)	46(100.0)		
적극 반대한다	2(33.3)	1(16.7)	2(33.3)	1(16.7)	6(100.0)		

<표2-17> 장애인 접촉 경험별 함께 단체생활 하는 것에 대한 생각

구분	장애인 접촉 경험				계	평균 (표준편차)	χ^2
	자주 있다	다소 있다	거의 없다	전혀 없다			
아주 긍정적이다	93(62.0)	44(29.3)	12(8.0)	1(0.7)	150(100.0)	3.73 (0.735)	-
긍정적이다	205(33.3)	285(46.3)	115(18.7)	10(1.6)	615(100.0)		
보통이다	72(18.7)	169(43.8)	134(34.7)	11(2.8)	386(100.0)		
부정적이다	7(23.3)	6(20.0)	13(43.3)	4(13.3)	30(100.0)		
아주 부정적이다	2(25.0)	2(25.0)	3(37.5)	1(12.5)	8(100.0)		

장애인 접촉 경험별로 장애인과 결혼 할 의향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에서도 비슷한 것을 알 수 있음. 즉, 장애인 접촉 경험이 많을수록 결혼 의향이 높게 나타났음.

이는 장애인을 접촉하는 경험이 많아질수록 장애인에 대한 거부감이나 배제하려고 하는 인식 정도가 낮아진다는 것과 사회구성원의 일부로 자연스럽게 받아드리는 비율이 높음을 나타내는 결과로 볼 수 있음.

<표2-18> 장애인 접촉 경험별 장애인과 결혼 할 의향

구분	장애인 접촉 경험				계	평균 (표준편차)	χ^2
	자주 있다	다소 있다	거의 없다	전혀 없다			
기꺼이 한다	16(57.1)	7(25.0)	4(14.3)	1(3.6)	28(100.0)	3.10 (1.513)	44.919***
다시 생각해본다	96(34.4)	130(46.6)	52(18.6)	1(0.4)	279(100.0)		
상관없다	46(32.9)	64(45.7)	27(19.3)	3(2.1)	140(100.0)		
안한다	94(27.6)	153(45.0)	86(25.3)	7(2.1)	340(100.0)		
절대 안한다	27(22.3)	45(37.2)	41(33.9)	8(6.6)	121(100.0)		
모르겠다	96(35.6)	103(38.1)	65(24.1)	6(2.2)	270(100.0)		

주1) *P<.05, ** P<.01 *** P<.001

직업별 장애인과 함께 교육 받는 것, 단체생활 하는 것, 결혼 의향에 대한 생각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함께 교육 받는 것과 단체생활 하는 것에 있어서는 학생을 제외한 모든 직업군에서 찬성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다만, 결혼 의향에 있어서는 모든 직업군에서 부정적인 비율이 압도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2-19> 직업별 장애인과 함께 교육 받는 것에 대한 생각

구분	장애인과 함께 교육 받는 것에 대한 생각					전체	X ²
	적극찬성	찬성	그저 그렇다	반대	적극 반대		
직업							-
공무원	58(14.0)	233(56.3)	109(26.3)	14(3.4)	0(0.0)	414(100.0)	
복지기관 종사자	46(24.3)	109(57.7)	31(16.4)	1(0.5)	2(1.1)	189(100.0)	
병의원 종사자	13(12.1)	65(60.7)	27(25.2)	2(1.9)	0(0.0)	107(100.0)	
학교 종사자	11(17.2)	37(57.8)	16(25.0)	0(0.0)	0(0.0)	64(100.0)	
학생	13(7.1)	59(32.1)	89(48.4)	19(10.3)	4(2.2)	184(100.0)	
정치인	0(0.0)	2(66.7)	1(33.3)	0(0.0)	0(0.0)	3(100.0)	
통반장	10(17.2)	29(50.0)	18(31.0)	1(1.7)	0(0.0)	58(100.0)	
기타	31(19.3)	80(49.7)	42(26.1)	8(5.0)	0(0.0)	161(100.0)	

<표2-20> 직업별 장애인과 단체생활 하는 것에 대한 생각

구분	장애인과 단체생활 하는 것에 대한 생각					전체	X ²
	아주 긍정	긍정	보통	부정	아주 부정		
직업							-
공무원	47(11.3)	223(54.7)	138(39.3)	6(1.4)	1(0.2)	415(100.0)	
복지기관 종사자	35(18.4)	113(59.5)	38(20.0)	1(0.5)	3(1.6)	190(100.0)	
병의원 종사자	14(13.1)	56(52.3)	37(34.6)	0(0.0)	0(0.0)	107(100.0)	
학교 종사자	7(10.8)	43(66.2)	13(20.0)	2(3.1)	0(0.0)	65(100.0)	
학생	15(8.1)	61(33.0)	92(49.7)	14(7.6)	3(1.6)	185(100.0)	
정치인	0(0.0)	1(33.3)	2(66.7)	0(0.0)	0(0.0)	3(100.0)	
통반장	9(15.5)	26(44.8)	21(36.2)	1(1.7)	1(1.7)	58(100.0)	
기타	23(14.2)	89(54.9)	44(27.2)	6(3.7)	0(0.0)	162(100.0)	

<표2-21> 직업별 장애인과 결혼 할 의향

구분	장애인과 결혼 할 의향						전체	X2
	기꺼이 한다	다시 생각해 본다	상관 없다	안한다	절대 안한다	모르겠다		
직업								-
공무원	4(1.0)	108(26.3)	38(9.3)	126(30.7)	31(7.6)	103(25.1)	410(100.0)	
복지기관 종사자	8(4.2)	45(23.7)	26(13.7)	57(30.0)	14(7.4)	40(21.1)	190(100.0)	
병의원 종사자	2(1.9)	23(21.7)	9(8.5)	39(36.8)	14(13.2)	19(17.9)	106(100.0)	
학교 종사자	2(3.1)	14(21.5)	7(10.8)	14(21.5)	6(9.2)	22(33.8)	65(100.0)	
학생	4(2.2)	30(16.2)	28(15.1)	52(28.1)	36(19.5)	35(18.9)	185(100.0)	
정치인	0(0.0)	1(33.3)	2(66.7)	0(0.0)	0(0.0)	0(0.0)	3(100.0)	
통반장	3(5.4)	10(17.9)	8(14.3)	17(30.4)	4(7.1)	14(25.0)	56(100.0)	
기타	5(3.1)	44(27.5)	22(13.8)	35(21.9)	17(10.6)	37(23.0)	160(100.0)	

(7) 수원시 장애인 복지제도 수준/미흡한 이유

수원시 장애인 복지제도 수준에 대해 분석한 결과, 보통이다(40.1%)가 가장 많았으며, 잘 되어 있다가 약 17%, 미흡하다가 약 43%로 나타남. 미흡한 이유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54.0%)이 과반수를 넘는 것으로 나타남.

<표2-22> 수원시 장애인 복지제도 수준/미흡한 이유

항목	빈도(백분율)	항목	빈도(백분율)
수원시 장애인 복지제도 수준		미흡한 이유	
아주 잘 되어있다	28(2.4)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	433(54.0)
약간 잘 되어있다	166(14.1)	정부의 의식 부족	115(14.3)
보통이다	472(40.1)	예산 부족	111(13.8)
약간 미흡하다	296(25.1)	장애인의 참여 부족	34(4.2)
아주 미흡하다	216(18.3)	개인 또는 지역 이기주의	101(12.6)
계	1178(100.0)	기타	8(1.0)
평균(표준편차)	2.57 (1.018)	계	802(100.0)

수원시 장애인 복지제도 수준에 대하여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연령, 장애인 본인 또는 가족 중 장애인 유무, 자원봉사 경험 유무, 직업군별로 모두 동일하게 수원시 장애인 복지제도 수준이 미흡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잘 되어 있다고 응답한 비율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남.

이 같은 결과는 본 연구의 조사응답자들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장애인 복지 체감수준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볼 수 있음.

<표2-23> 일반사항별 수원시 장애인 복지제도 수준

구분	수원시 장애인 복지제도 수준					계	X ²
	아주 잘 되어 있다	약간 잘 되어있다	보통이다	약간 미흡하다	아주 미흡하다		
연령							
19세 이하	2(2.1)	13(13.7)	36(37.9)	28(29.5)	16(16.8)	95(100.0)	26.973
20-29세	6(2.1)	32(11.1)	105(36.5)	86(29.9)	59(20.5)	288(100.0)	
30-39세	4(1.3)	36(12.1)	114(38.3)	78(26.2)	66(22.1)	298(100.0)	
40-49세	10(3.1)	52(16.3)	138(43.3)	71(22.3)	48(15.0)	319(100.0)	
50-59세	5(3.4)	26(17.6)	67(45.3)	26(17.6)	24(16.2)	148(100.0)	
60세 이상	1(4.3)	5(21.7)	10(43.5)	5(21.7)	2(8.7)	23(100.0)	
가족 중, 장애인 유무							
자신이 장애인	1(2.2)	6(13.3)	21(46.7)	11(24.4)	6(13.3)	45(100.0)	17.716*
가족 중, 장애인 있음	5(3.5)	17(12.1)	42(29.8)	54(38.3)	23(16.3)	141(100.0)	
장애인 없음	22(2.2)	143(14.6)	403(41.2)	229(23.4)	181(18.5)	978(100.0)	
장애 관련 자원봉사 경험							
예	13(2.0)	90(14.2)	246(38.7)	172(27.0)	115(18.1)	636(100.0)	3.660
아니오	15(2.8)	76(14.2)	223(41.8)	121(22.7)	99(18.5)	534(100.0)	
직업							
공무원	12(2.9)	77(18.6)	168(40.7)	106(25.7)	50(12.1)	413(100.0)	-
복지기관 종사자	4(2.1)	23(12.1)	78(41.0)	47(24.7)	38(20.0)	190(100.0)	
병의원 종사자	0(0.0)	6(5.7)	34(32.4)	27(25.7)	38(36.2)	105(100.0)	
학교 종사자	2(3.2)	15(2.4)	26(41.9)	9(14.5)	10(16.1)	62(100.0)	
학생	4(2.2)	21(11.4)	78(42.2)	51(27.6)	31(16.8)	185(100.0)	
정치인	0(0.0)	1(33.3)	2(66.7)	0(0.0)	0(0.0)	3(100.0)	
통반장	1(1.8)	7(12.5)	22(39.3)	17(30.4)	9(16.1)	56(100.0)	
기타	5(3.1)	16(10.0)	62(38.8)	38(23.8)	39(24.4)	160(100.0)	

주1) *P<.05, ** P<.01 *** P<.001

주2) 셀의 빈도가 5미만인 경우가 20%이상이면 X²값을 제시하지 않음.

(8) 장애인 관련 정보 접근 경로

장애인 관련 정보 접근 경로에 대해 분석한 결과, 주로 텔레비전, 라디오와 같은 매스컴을 통해(53.6%) 정보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본인이 종사하는 업무를 통해(16.6%), 봉사활동 또는 장애인 관련단체를 통해서(15.4%) 얻는 것으로 나타남.

<표2-24> 장애인 관련 정보 접근 경로

항목	빈도(백분율)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등 매스컴을 통해서	630(53.6)
선생님들의 장애인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59(5.0)
부모님의 장애인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23(2.0)
이웃, 친구들을 통해서	65(5.5)
봉사활동 또는 장애인 관련단체를 통해서	181(15.4)
본인이 종사하는 업무를 통해서	195(16.6)
기타	22(1.9)
계	1176(100.0)

직업별 장애인 관련 정보 접근 경로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공무원과 학교 종사자, 학생의 경우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등 매스컴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 비율이 높은 반면, 복지기관 종사자나 병의원 종사자 등은 봉사활동 또는 장애인 관련단체를 통해서나 본인이 종사하는 업무를 통해서 정보를 얻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결과 또한 본 연구의 응답대상자들의 특성을 일정부분 나타내고 있으며, 공무원이나 학교 종사자, 학생 등을 일반 시민으로 인정한다면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매스미디어 통한 정보 전달이나 교육 등이 필요함을 나타내고 있음.

<표2-25> 직업별 장애관련 정보 접근 경로

구분	장애관련 정보 접근 경로							전체	X ²
	①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등 매스컴을 통해서	② 선생님들의 장애인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③ 부모님의 장애인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④ 이웃, 친구들을 통해서	⑤ 봉사활동 또는 장애인 관련단체를 통해서	⑥ 본인이 종사하는 업무를 통해서	⑦ 기타		
직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공무원	256 (62.1)	13 (3.2)	4 (1.0)	22 (5.3)	47 (11.4)	59 (14.3)	11 (50.0)	412 (100.0)	-
복지기관 종사자	61 (32.8)	4 (2.2)	3 (1.6)	6 (3.2)	39 (21.0)	69 (37.1)	3 (13.6)	186 (100.0)	
병의원 종사자	52 (48.6)	5 (4.7)	1 (0.9)	4 (3.7)	16 (15.0)	28 (26.2)	1 (4.5)	107 (100.0)	
학교 종사자	36 (55.4)	4 (6.2)	0 (0.0)	5 (7.7)	5 (7.7)	15 (23.1)	0 (0.0)	65 (100.0)	
학생	97 (52.7)	25 (13.6)	11 (6.0)	13 (7.1)	33 (17.9)	3 (1.6)	2 (9.1)	184 (100.0)	
정치인	2 (66.7)	0 (0.0)	1 (33.3)	0 (0.0)	0 (0.0)	0 (0.0)	0 (0.0)	3 (100.0)	
통반장	24 (43.6)	0 (0.0)	1 (1.8)	7 (12.7)	20 (36.4)	1 (1.8)	2 (9.1)	55 (100.0)	
기타	98 (61.3)	8 (5.0)	2 (1.3)	8 (5.0)	21 (13.1)	20 (12.5)	3 (13.6)	160 (100.0)	

(9) 가족 중 장애인 발생에 대한 생각

가족 중 장애인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조사한 결과, 많이 힘들어 하겠지만 장애를 받아들이고자 노력할 것이다(44.2%)가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생각하고 싶지 않다(24.2%), 장애를 수용하고 적극 재활할 것이다(14.6%), 다소 불편한 일이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이다(13.8%)의 순으로 나타남.

<표2-26> 가족 중 장애인 발생에 대한 생각

항목	빈도(백분율)	평균(표준편차)
생각하고 싶지 않다	289(24.2)	2.91 (1.310)
절망하여 살고 싶지 않을 것이다	38(3.2)	
많이 힘들어 하겠지만 장애를 받아들이고자 노력할 것이다	527(44.2)	
다소 불편한 일이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이다	165(13.8)	
장애를 수용하고 적극 재활 할 것이다	174(14.6)	
계	1193(100.0)	

직업별 장애 발생에 대한 생각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대체로 많이 힘들어 하겠지만 장애를 받아들이고자 노력할 것이다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으며, 절망하며 살고 싶지 않을 것이라는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들은 비슷한 응답 비율을 보이고 있음.

이러한 조사 결과는 장애발생에 대한 운명적인 시각이나 신의 처벌 또는 비극적 관점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관점으로 변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물론, 본 조사의 응답자들의 특성을 감안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음.

<표2-27> 직업별 장애인 발생에 대한 생각

구분	장애인 발생에 대한 생각					전체	X ²
	① 생각하고 싶지 않다	② 절망하며 살고 싶지 않을 것이다	③ 많이 힘들어 하겠지만 장애를 받아들이고자 노력할 것이다	④ 다소 불편한 일이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이다	⑤ 장애를 수용하고 적극 재활 할 것이다		
직업							
공무원	105(25.2)	12(2.9)	207(49.6)	43(10.3)	50(12.0)	417(100.0)	-
복지기관 종사자	31(16.4)	7(3.7)	80(42.3)	34(18.0)	37(19.6)	189(100.0)	
병의원 종사자	19(17.8)	3(2.8)	56(52.3)	14(13.1)	15(14.0)	107(100.0)	
학교 종사자	13(20.0)	2(3.1)	35(53.8)	9(13.8)	6(9.2)	65(100.0)	
학생	57(30.6)	9(4.8)	65(34.9)	28(15.1)	27(14.5)	186(100.0)	
정치인	0(0.0)	0(0.0)	1(33.3)	1(33.3)	1(33.3)	3(100.0)	
통반장	23(38.3)	0(0.0)	14(23.3)	11(18.3)	12(20.0)	60(100.0)	
기타	41(25.3)	4(2.5)	69(42.6)	24(14.8)	24(14.8)	162(100.0)	

인식개선 교육을 받은 시기별로 가족 중 장애인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생각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받은 시기에 따라 가족 중 장애인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 고루 분포되고 있음. 각각의 영역에 고루 분포되고 있으며, 이러한 분포 사항이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일정한 경향성을 알 수 없음.

결국, 인식개선 교육과 장애에 대한 생각은 그리 큰 상관성이 없으며, 장애 발생에 대한 생각은 개별적인 특성에 결정되는 것을 알 수 있음. 따라서 장애인식 개선 교육 내용에 장애에 대한 진실보한 시각을 갖출 수 있도록 교과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표2-28> 인식개선 교육 받은 시기별 가족 중 장애인 발생에 대한 생각

구분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받은 시기						계	X ²
	유치원 교육 그 이전	초등 교육	중등 교육	대학 교육	성인 교육	전혀 받지 않았다		
생각하고 싶지 않다	15 (5.3)	62 (21.8)	34 (11.9)	27 (9.5)	62 (21.8)	85 (29.8)	285 (100.0)	48.058***
절망하여 살고 싶지 않을 것이다	3 (7.9)	14 (36.8)	5 (13.2)	8 (21.1)	3 (7.9)	5 (13.2)	38 (100.0)	
많이 힘들어 하겠지 만 장애를 받아들이 고자 노력할 것이다	20 (3.9)	102 (19.8)	56 (10.9)	114 (22.1)	105 (20.4)	118 (22.9)	515 (100.0)	
다소불편한 일이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이다	6 (3.8)	32 (20.1)	18 (11.3)	22 (13.8)	41 (25.8)	40 (25.2)	159 (100.0)	
장애를 수용하고 적극 재활 할 것이다	3 (1.8)	31 (18.3)	15 (8.9)	34 (20.1)	52 (30.8)	34 (20.1)	169 (100.0)	

(10) 장애인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다중응답)

장애인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다중응답 분석한 결과, 일자리 부족(33.2%)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사회적 차별(30.2%), 경제적 어려움(16.8%), 편의시설 부족(12.3%)의 순으로 나타남.

이상과 같은 결과는 2010년도에 수행된 제2기 수원시 지역주민 복지 욕구조사에서 조사된 결과와는 부분적으로 동일한 결과이지만 세부적으로는 상이함. 즉, 2010년도 조사에서 장애인 당사자들은 가장 큰 어려움으로 생활상의 어려움(경제적인 어려움)을 들었음. 일자리 부족이라는 항목과 경제적 어려움 항목이 크게 보면 비슷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세부적으로 이미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항목을 제시하였기에 본 조사에서는 다른 항목으로 구분되어진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장애인 당사자가 지목한 조사 결과와는 상이한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것임.

또한, 사회적 차별이라는 항목 응답이 비교적 높은 비율로 나타난 것은 2010년도 조사와 비슷한 결과이지만, 세부적으로 검토할 때, 2010년도 조사에서는 이러한 차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사회적 배려의 제도화(즉, 경제적 지원, 의료적 지원 등)를 요구하였음. 즉, 장애특성으로 인하여 차별받을 수밖에 없다

는 점을 이미 인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도적인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함을 언급하였었음. 따라서 장애인이 겪는 어려움을 피상적으로 유추하는 것과 실제 생활에서 겪는 당사자들의 응답 내용에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됨.

<표2-29> 장애인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다중응답)

항목	빈도(백분율)
사회적 차별	1124(30.2)
일자리 부족	1236(33.2)
편의시설 부족	457(12.3)
경제적 어려움	627(16.8)
교육시설 부족	139(3.7)
문화생활 부족	127(3.4)
기타	18(0.5)
계	3728(100.0)

(11) 설문 응답 후 장애인에 대한 인식 변화

설문 응답 후 장애인에 대한 인식 변화를 분석한 결과, 조금의 관심이 생겼다(38.7%)와 지속적으로 장애인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성을 느꼈다(38.7%)가 많으며, 적극적으로 장애인 문제에 관심을 갖고 돕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다(6.2%)에 반해 여전히 관심 없다(15.1%) 역시 낮지 않은 비율로 나타남. 이러한 경향성은 직업군별로 세분하여 검토한 결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음. 결국,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서든 장애(인)로 인한 여러 내용이나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필요가 있음.

<표2-30> 설문 응답 후 장애인에 대한 인식 변화

항목	빈도(백분율)
전혀 관심 없으며 성가시고 귀찮다	18(1.5)
형식적으로 대답은 했지만 여전히 관심은 없다	159(13.6)
조금의 관심이 생겼다	468(39.9)
지속적으로 장애인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성을 느꼈다	454(38.7)
적극적으로 장애인 문제에 관심을 갖고 돕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다	73(6.2)
계	1172(100.0)

<표2-31> 직업별 설문 응답 후 장애인에 대한 인식 변화

구분	설문 응답 후 장애인에 대한 인식 변화					전체	X ²
	① 전혀 관심 없으며 성가시고 귀찮다	② 형식적으로 대답은 했으나 여전히 관심은 없다	③ 조금의 관심이 생겼다	④ 지속적으로 장애인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성을 느꼈다	⑤ 적극적으로 장애인 문제에 관심을 갖고 돕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다.		
직업	①	②	③	④	⑤		
공무원	6(2.5)	43(10.5)	180(43.9)	167(40.7)	14(3.4)	410(100.0)	-
복지기관 종사자	0(0.0)	10(5.4)	62(33.3)	93(50.0)	21(11.3)	186(100.0)	
병의원 종사자	0(0.0)	17(16.3)	39(37.5)	40(38.5)	8(7.7)	104(100.0)	
학교 종사자	0(0.0)	3(4.6)	27(41.5)	30(46.2)	5(7.7)	65(100.0)	
학생	9(4.9)	54(29.3)	75(40.8)	39(21.2)	7(3.8)	184(100.0)	
정치인	0(0.0)	1(33.3)	1(33.3)	1(33.3)	0(0.0)	3(100.0)	
통반장	1(1.8)	2(3.6)	27(48.2)	21(37.5)	5(8.9)	56(100.0)	
기타	2(1.3)	28(17.5)	56(35.0)	63(39.4)	11(6.9)	160(100.0)	

3) 장애인 직업재활 및 고용

(1) 장애인 사회참여에 대한 인식

장애인 사회참여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 분석한 결과, 긍정적이다(60.9%)가 가장 많으며, 매우 긍정적이다(18.9%), 그저 그렇다(18.8%)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2-32> 장애인 사회참여에 대한 인식

단위: 명(%)

항목	빈도(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장애인 사회참여에 대한 인식		
매우 긍정적이다	224(18.9)	3.97 (0.676)
긍정적이다	723(60.9)	
그저 그렇다	223(18.8)	
부정적이다	13(1.1)	
매우 부정적이다	5(0.4)	
계	1188(100.0)	

장애인 사회참여에 대한 인식을 조금 더 세분하여 분석한 결과, 연령과 가족 중 장애인 유무, 장애 관련 자원봉사 경험, 직업군 모두 비율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긍정적인 응답 비율이 부정적인 응답비율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표2-33> 일반사항별 장애인 사회참여에 대한 인식

구분	장애인 사회참여에 대한 인식					계	X ²
	매우 긍정적 이다	긍정적 이다	그저 그렇다	부정적 이다	매우 부정적 이다		
연령							-
19세 이하	10 (10.5)	28 (29.5)	49 (51.6)	5 (5.3)	3 (3.2)	95 (100.0)	
20-29세	54 (18.5)	175 (58.9)	61 (20.9)	2 (0.7)	0 (0)	292 (100.0)	
30-39세	58 (19.1)	198 (65.3)	43 (14.2)	3 (1.0)	1 (0.3)	303 (100.0)	
40-49세	65 (20.2)	213 (66.4)	42 (13.1)	1 (0.3)	0 (0)	321 (100.0)	
50-59세	34 (23.6)	86 (59.7)	22 (15.3)	2 (1.4)	0 (0)	144 (100.0)	
60세 이상	3 (11.5)	16 (61.5)	6 (23.1)	0 (0)	1 (3.8)	26 (100.0)	
가족 중, 장애인 유무							
자신이 장애인	17 (39.5)	19 (44.2)	6 (14.0)	1 (2.3)	0 (0)	43 (100.0)	-
가족 중, 장애인 있음	44 (30.3)	83 (57.2)	16 (11.0)	1 (0.7)	1 (0.7)	145 (100.0)	
장애인 없음	162 (16.4)	610 (61.9)	199 (20.2)	11 (1.1)	4 (0.4)	986 (100.0)	
장애 관련 자원봉사 경험							
예	132 (20.7)	403 (63.3)	94 (14.8)	5 (0.8)	3 (0.5)	637 (100.0)	17.735**
아니오	92 (16.9)	312 (57.5)	129 (23.8)	8 (1.5)	2 (0.4)	543 (100.0)	
직업							
공무원	70 (16.7)	290 (69.4)	57 (13.6)	1 (0.2)	0 (0.0)	418 (100.0)	-
복지기관 종사자	49 (25.8)	118 (62.1)	20 (10.5)	2 (1.1)	1 (0.5)	190 (100.0)	
병의원 종사자	18 (17.0)	64 (60.4)	23 (21.7)	1 (0.9)	0 (0.0)	106 (100.0)	
학교 종사자	18 (27.7)	43 (66.2)	4 (6.2)	0 (0.0)	0 (0.0)	65 (100.0)	
학생	25 (13.6)	80 (43.5)	69 (37.5)	7 (3.8)	3 (1.6)	184 (100.0)	
정치인	0 (0.0)	0 (0.0)	3 (100.0)	0 (0.0)	0 (0.0)	3 (100.0)	
통반장	12 (21.4)	34 (60.7)	9 (16.1)	0 (0.0)	1 (1.8)	56 (100.0)	
기타	32 (19.8)	90 (55.6)	38 (23.5)	2 (1.2)	0 (0.0)	162 (100.0)	

주1) *P<.05, ** P<.01 *** P<.001

주2) 셀의 빈도가 5미만인 경우가 20%이상이면 X²값을 제시하지 않음.

(2) 장애인 직업 능력/ 장애인 직장동료와 근무하는 것/ 장애인 급여 수준에 대한 생각
 장애인의 직업 능력에 대한 조사한 결과, 비장애인보다 낮다(51.4%), 비장애인과 동등하다(38.4%)에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장애인 직장동료와 함께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55.4%), 그저 그렇다(24.4%)의 순으로 나타남. 또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일한 근무 조건일 때 급여수준은 어느 정도 받아야 하는지 조사한 결과,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받아야 한다(58.2%), 비장애인만큼은 아니지만 최저임금 이상을 받아야 한다(34.5%)는 의견이 많음.

<표2-34> 장애인 직업 능력/ 장애인 직장동료와 근무하는 것/ 장애인 급여 수준에 대한 생각

항목	빈도(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장애인 직업 능력에 대한 인식		
비장애인보다 매우 높다	23(2.0)	2.45 (0.729)
비장애인보다 높다	35(3.0)	
비장애인과 동등하다	450(38.4)	
비장애인보다 낮다	602(51.4)	
비장애인보다 매우 낮다	62(5.3)	
계	1172(100.0)	
장애인 직장동료와 근무하는 것에 대한 인식		
매우 긍정적이다	123(10.1)	3.64 (0.845)
긍정적이다	656(55.4)	
그저 그렇다	289(24.4)	
조금 불편한 일이다	92(7.8)	
매우 불편한 일이다	24(2.0)	
계	1184(100.0)	
장애인의 급여 수준에 대한 생각(동일 근무조건 시)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받아야 한다	689(58.2)	-
비장애인만큼은 아니지만 최저임금 이상으로 받아야 한다	409(34.5)	
최저임금 수준이어야 한다	33(2.8)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아야 한다	11(0.9)	
사회참여만 이뤄진다면 임금 수준은 중요하지 않다	42(3.5)	
계	1184(100.0)	

직업별 장애인 직장동료와 일하는 것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있는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일근무 조건 시, 장애인 급여수준에 대한 생각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응답 형태와 비슷하게 나타났음.

<표2-35> 직업별 장애인 직장동료와 일하는 것에 대한 생각

구분	장애인 직장동료와 일하는 것에 대한 생각					전체	X ²
	매우긍정	긍정	그저그렇다	조금불편	매우불편		
직업							-
공무원	43(10.3)	260(62.1)	75(17.9)	39(9.3)	2(0.5)	419(100.0)	
복지기관 종사자	24(12.8)	111(59.0)	39(20.7)	12(6.4)	2(1.1)	188(100.0)	
병의원 종사자	11(10.4)	48(45.3)	32(30.2)	14(13.2)	1(0.9)	106(100.0)	
학교 종사자	7(10.8)	44(67.7)	10(15.4)	1(1.5)	3(4.6)	65(100.0)	
학생	14(7.6)	76(41.1)	80(43.2)	9(4.9)	6(3.2)	185(100.0)	
정치인	0(0.0)	1(33.3)	1(33.3)	0(0.0)	1(33.3)	3(100.0)	
통반장	8(14.8)	25(46.3)	13(24.1)	4(7.4)	4(7.4)	54(100.0)	
기타	15(9.4)	89(55.6)	38(23.8)	13(8.1)	5(3.1)	160(100.0)	

주1) *P<.05, ** P<.01 *** P<.001

주2) 셀의 빈도가 5미만인 경우가 20%이상이면 X²값을 제시하지 않음.

<표2-36> 직업별 장애인 급여수준에 대한 생각

구분	장애인 급여수준에 대한 생각					전체	X ²
	①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받아야 한다 ② 비장애인만큼은 아니지만 최저임금 이상으로 받아야 한다 ③ 최저임금 수준이어야 한다 ④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아야 한다 ⑤ 사회참여만 이뤄진다면 임금수준은 중요하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직업							
공무원	266(64.1)	121(29.2)	5(1.2)	3(0.7)	20(4.8)	415(100.0)	-
복지기관 종사자	115(60.8)	64(33.9)	7(3.7)	1(0.5)	2(1.1)	189(100.0)	
병의원 종사자	61(57.5)	40(37.7)	1(0.9)	0(0.0)	4(3.8)	106(100.0)	
학교 종사자	41(63.1)	24(36.9)	0(0.0)	0(0.0)	0(0.0)	65(100.0)	
학생	105(56.8)	60(32.4)	10(5.4)	4(2.2)	6(3.2)	185(100.0)	
정치인	0(0.0)	0(0.0)	1(33.3)	1(33.3)	1(33.3)	3(100.0)	
통반장	21(37.5)	27(48.2)	2(3.6)	2(3.6)	4(7.1)	56(100.0)	
기타	79(49.1)	70(43.5)	7(4.3)	0(0.0)	5(3.1)	161(100.0)	

장애인 직업 능력 인식에 대해 조금 더 세분하여 분석한 결과, 연령, 가족 중 장애인 유무, 장애 관련 자원봉사 경험유무, 직업군별 모두에서 전체 응답자의 응답 패턴과 동일하게 나타남. 이러한 응답결과는 연령, 장애 가족 구성원 유무, 자원봉사 유무, 직업군별로 각각 상이한 응답결과를 가지고 있다거나 특성 있는 결과가 도출된다고 보기 보다는 일반적인 생각이나 의견이 종합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임.

<표2-37> 일반사항별 장애인 직업 능력에 대한 인식

구분	장애인 직업 능력에 대한 인식					계	X ²
	비장애인 보다 매우 높다	비장애인 보다 높다	비장애인 과 동등하다	비장애인 보다 낮다	비장애인 보다 매우 낮다		
연령							
19세 이하	5 (5.3)	4 (4.2)	36 (37.9)	39 (41.1)	11 (11.6)	95 (100.0)	-
20-29세	4 (1.4)	10 (3.4)	134 (46.2)	137 (47.2)	5 (1.7)	290 (100.0)	
30-39세	2 (0.7)	6 (2.0)	114 (38.3)	171 (57.4)	5 (1.7)	298 (100.0)	
40-49세	7 (2.2)	5 (1.6)	117 (36.9)	168 (53.0)	20 (6.3)	317 (100.0)	
50-59세	5 (3.5)	8 (5.6)	41 (28.7)	70 (49.0)	19 (13.3)	143 (100.0)	
60세 이상	0 (0)	2 (8.7)	6 (26.1)	13 (56.5)	2 (8.7)	23 (100.0)	
가족 중, 장애인 유무							
자신이 장애인	4 (9.5)	1 (2.4)	17 (40.5)	17 (40.5)	3 (7.1)	42 (100.0)	-
가족 중, 장애인 있음	6 (4.2)	3 (2.1)	59 (41.3)	69 (48.3)	6 (4.2)	143 (100.0)	
장애인 없음	12 (1.2)	31 (3.2)	370 (38.0)	508 (52.5)	52 (5.3)	973 (100.0)	
장애 관련 자원봉사 경험							
예	7 (1.1)	15 (2.4)	243 (38.1)	338 (53.1)	34 (5.3)	637 (100.0)	8.458
아니오	16 (3.0)	20 (3.8)	205 (38.9)	258 (49.0)	28 (5.3)	527 (100.0)	
직업							
공무원	8 (1.9)	10 (2.4)	132 (31.8)	239 (57.6)	26 (6.3)	415 (100.0)	-
복지기관 종사자	1 (0.5)	3 (1.6)	79 (42.7)	99 (53.5)	3 (1.6)	185 (100.0)	
병의원 종사자	0 (0.0)	1 (0.9)	47 (44.3)	54 (50.9)	4 (3.8)	106 (100.0)	
학교 종사자	0 (0.0)	1 (1.6)	30 (46.9)	30 (46.9)	3 (4.7)	64 (100.0)	
학생	7 (3.8)	8 (4.3)	78 (42.4)	78 (42.4)	13 (7.1)	184 (100.0)	
정치인	0 (0.0)	1 (33.3)	1 (33.3)	0 (0.0)	1 (33.3)	3 (100.0)	
통반장	0 (0.0)	2 (3.9)	16 (31.4)	26 (51.0)	7 (13.7)	51 (100.0)	
기타	7 (4.4)	9 (5.6)	67 (41.9)	72 (45.0)	5 (3.1)	160 (100.0)	

주1) *P<.05, ** P<.01 *** P<.001

주2) 셀의 빈도가 5미만인 경우가 20%이상이면 X²값을 제시하지 않음.

(3) 장애인 취업

장애인 취업에 관한 설문은 두 가지로 분류됨. 장애인 직업훈련이 취업에 도움이 되는 정도에 대한 인식과 장애인 취업이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임.

장애인 직업훈련이 장애인의 취업에 도움이 되는 정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매우 도움이 된다(42.4%), 조금 도움이 된다(39.2%)가 많아 주로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2-38> 직업훈련이 장애인 취업에 도움이 되는 정도

항목	빈도(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장애인의 직업훈련이 취업에 도움이 되는 정도		
매우 도움이 된다	504(42.4)	4.18 (0.877)
조금 도움이 된다	466(39.2)	
보통이다	173(14.5)	
도움이 안된다	29(2.4)	
전혀 도움이 안된다	18(1.5)	
계	1190(100)	

직업별로 장애인 직업훈련이 장애인의 취업에 도움이 되는 정도에 대해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도움이 된다는 응답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2-39> 직업별 장애인 직업훈련이 장애인의 취업에 도움이 되는 정도

구분		장애인 직업훈련이 장애인의 취업에 도움이 되는 정도					전체	X ²
		매우 도움이 된다	조금 도움이 된다	보통이다	조금 불편한 일이다	전혀 도움이 안된다		
직업								-
공무원	206 (49.2)	159 (37.9)	46 (11.0)	8 (1.9)	0 (0.0)	419 (100.0)		
복지기관 종사자	84 (44.4)	70 (37.0)	25 (13.2)	7 (3.7)	3 (1.6)	189 (100.0)		
병의원 종사자	48 (45.3)	42 (39.6)	14 (13.2)	2 (1.9)	0 (0.0)	106 (100.0)		
학교 종사자	30 (46.9)	27 (42.2)	7 (10.9)	0 (0.0)	0 (0.0)	64 (100.0)		
학생	44 (23.8)	74 (40.0)	49 (26.5)	9 (4.9)	9 (4.9)	185 (100.0)		
정치인	0 (0.0)	3 (0.6)	0 (0.0)	0 (0.0)	0 (0.0)	3 (100.0)		
통반장	21 (35.6)	24 (40.7)	9 (15.3)	1 (1.7)	4 (6.8)	59 (100.0)		
기타	71 (44.1)	65 (40.4)	21 (13.0)	2 (1.2)	2 (1.2)	161 (100.0)		

주1) *P<.05, ** P<.01 *** P<.001

주2) 셀의 빈도가 5미만인 경우가 20%이상이면 X²값을 제시하지 않음.

장애인 취업이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기업의 장애인 고용 의지 부족(35.1%)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사회적 책임의식 부족(19.5%), 직무의 적정성의 문제(13.8%), 직장 동료와 상호관계의 문제(10.5%) 순으로 나타났다.

<표2-40> 장애인 취업이 가장 어려운 점(다중응답)

항목	빈도(백분율)
기업의 장애인 고용 의지 부족	777(35.1)
장애 당사자의 취업 의지 부족	154(6.9)
사회적 책임의식 부족	433(19.5)
직장 동료와 상호관계의 문제	232(10.5)
직무의 적정성의 문제	306(13.8)
직업훈련(교육) 부족	140(6.3)
기업의 특성에 따른 안전성의 문제	113(5.1)
이동의 문제	23(1.0)
편의시설 및 장비의 부족	36(1.6)
기타	2(0.1)
계	2216(100.0)

(4) 장애인 고용

장애인 고용을 위해 우선 해결되어야 할 것에 대해 조사한 결과, 고용주의 긍정적 장애인식 개선(29.4%), 고용촉진법 강화를 통한 장애인 의무고용을 확대(28.4%),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및 일자리 확대(27.9%)의 순으로 나타남. 이러한 응답결과는 직업군별로 세분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도 비슷한 패턴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2-41> 고용을 위해 우선 해결되어야 할 것

항목	빈도(백분율)
고용촉진법 강화를 통한 장애인 의무고용을 확대	334(28.4)
장애인 스스로의 취업 의지 고취	105(8.9)
고용주의 긍정적 장애인식 개선	345(29.4)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보호작업장) 및 일자리 확대	328(27.9)
장애인 직업교육(훈련) 강화	59(5.0)
기타	3(0.3)
계	1174(100.0)

<표2-42> 직업별 장애인 고용을 위해 우선 해결되어야 할 것

구분	장애인 고용을 위해 우선 해결되어야 할 것						전체	X ²
	① 고용촉진법 강화를 통한 장애인 의무고용을 확대	② 장애인 스스로의 취업의지 고취	③ 고용주의 긍정적 장애인식 개선	④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및 일자리 확대	⑤ 장애인 직업교육 및 훈련 강화	⑥ 기타		
직업	①	②	③	④	⑤	⑥		
공무원	126(30.5)	44(10.7)	111(26.9)	110(26.6)	22(5.3)	0(0.0)	413(100.0)	-
복지기관 종사자	49(26.2)	15(8.0)	47(25.1)	63(33.7)	12(6.4)	1(0.5)	187(100.0)	
병의원 종사자	39(36.4)	6(5.6)	27(25.2)	29(27.1)	6(5.6)	0(0.0)	107(100.0)	
학교 종사자	25(39.1)	2(3.1)	15(23.4)	18(28.1)	4(6.3)	0(0.0)	64(100.0)	
학생	31(16.8)	16(8.7)	84(45.7)	46(25.0)	5(2.7)	2(1.1)	184(100.0)	
정치인	0(0.0)	0(0.0)	1(33.3)	2(66.7)	0(0.0)	0(0.0)	3(100.0)	
통반장	16(32.0)	6(12.0)	11(22.0)	16(32.0)	1(2.0)	0(0.0)	50(100.0)	
기타	46(28.4)	15(9.3)	48(29.6)	44(27.2)	9(5.6)	0(0.0)	162(100.0)	

응답자가 사업주일 경우, 사업장에 장애인 고용 의사에 대해 조사한 결과, 고용하겠다(88.6%)는 의견이 많았으며, 고용하지 않겠다(11.4%)는 의견도 일정 정도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2-43> 장애인 고용의사

항목	빈도(백분율)
고용하겠다	999(88.6)
고용하지 않겠다	129(11.4)
계	1128(100.0)

(5) 수원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증축 필요에 대한 의견/ 직업재활시설이 취업에 도움을 주는 정도

수원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더 많이 설치되어야 하는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취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 증축 필요성의 경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69%(어느 정도 그렇다 45.4%, 매우 그렇다 23.8%)로

나타났고, 도움을 주는 정도는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71%로 조사되었음. 직업군별로 세분하여 분석할 결과에서도 직업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비슷한 응답 패턴을 알 수 있음.

<표2-44> 수원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증축 필요에 대한 의견/ 직업재활시설이 취업에 도움을 주는 정도

항목	빈도(백분율)	평균(표준편차)
수원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증축 필요에 대한 의견		
매우 그렇다	282(23.8)	3.90 (0.790)
어느 정도 그렇다	537(45.4)	
모르겠다	336(28.4)	
그렇지 않다	26(2.2)	
전혀 그렇지 않다	3(0.3)	
계	1184(100.0)	
직업재활시설이 취업에 도움을 주는 정도		
매우 그렇다	246(20.9)	3.87 (0.808)
어느 정도 그렇다	589(50.1)	
모르겠다	286(24.3)	
그렇지 않다	46(3.9)	
전혀 그렇지 않다	8(0.7)	
계	1175(100.0)	

<표2-45> 직업별 수원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증축 필요에 대한 의견

구분	수원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증축 필요에 대한 의견					전체	X ²
	매우 그렇다	어느정도그 렇다	모르겠다	그렇지 않다	전혀그렇 지않다		
직업							-
공무원	95(22.8)	204(49.0)	106(25.5)	11(2.6)	0(0.0)	416(100.0)	
복지기관 종사자	58(30.9)	93(49.5)	33(17.6)	4(2.1)	0(0.0)	188(100.0)	
병의원 종사자	23(21.5)	50(46.7)	32(29.9)	1(0.9)	1(0.9)	107(100.0)	
학교 종사자	15(23.4)	31(48.4)	18(28.1)	0(0.0)	0(0.0)	64(100.0)	
학생	26(1.41)	66(35.7)	88(47.6)	3(1.6)	2(1.1)	185(100.0)	
정치인	0(0.0)	3(100.0)	0(0.0)	0(0.0)	0(0.0)	3(100.0)	
통반장	17(31.5)	27(50.0)	9(16.7)	1(1.9)	0(0.0)	54(100.0)	
기타	45(27.6)	62(38.0)	50(30.7)	6(3.7)	0(0.0)	163(100.0)	

<표2-46> 직업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취업에 도움을 정도에 대한 의견

구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장애인 취업에 도움을 주는 정도					전체	X ²
	매우 그렇다	어느 정도 그렇다	모르겠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직업							
공무원	91(22.0)	223(53.9)	87(21.0)	12(2.9)	1(0.2)	414(100.0)	-
복지기관 종사자	37(19.6)	108(57.1)	38(20.1)	5(2.6)	1(0.5)	189(100.0)	
병의원 종사자	22(21.0)	61(58.1)	15(14.3)	7(6.7)	0(0.0)	105(100.0)	
학교 종사자	14(21.9)	34(53.1)	15(23.4)	1(1.6)	0(0.0)	64(100.0)	
학생	28(15.3)	74(40.4)	72(39.3)	7(3.8)	2(1.1)	183(100.0)	
정치인	1(33.3)	1(33.3)	1(33.3)	0(0.0)	0(0.0)	3(100.0)	
통반장	14(27.5)	24(47.1)	8(15.7)	2(3.9)	3(5.9)	51(100.0)	
기타	38(23.5)	61(37.7)	50(30.9)	12(7.4)	1(0.6)	162(100.0)	

(6)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 및 장애인의무고용 인지 정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 및 장애인의무고용 인지 정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들어본 적 없다(28.2%)가 가장 많으며,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제도에 대해 알고 있다(26.5%),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에 대해 알고 있다(26.1%)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반면 두 제도 모두 알고 있는 경우(19.2%)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차지함.

<표2-47>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 및 장애인의무고용 인지 정도

항목	빈도(백분율)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제도에 대해 알고 있다	312(26.5)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에 대해 알고 있다	308(26.1)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제도 및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둘 다 알고 있다	226(19.2)
들어본 적 없다	333(28.2)
계	1179(100.0)

직업별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 및 장애인의무고용제도 인지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두 가지 모두를 다 알고 있는 직업은 복지기관 종사자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물론, 정치인의 경우 빈도가 너무 낮은 관계로 논외로 하였음), 공무원을 제외하고서 나머지 직업군

에서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에 대한 인지 정도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인지정도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공무원의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인지보다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인지 정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이와 같은 결과는 수원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음. 즉, 2012년도에 수행된 장애인 교육, 복지제도 16개 시,도 비교(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에서 경기도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에 비하여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은 미흡한 것으로 조사 되었음. 이는 경기도 전체의 장애인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시각과 관점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가 각 지자체의 장애인복지 흐름을 좌우함을 동시에 알 수 있는 결과임.

<표2-48> 직업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 및 장애인의무고용 인지 정도

구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 및 장애인의무고용 인지 정도				전체	X ²
	①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에 대해 알고 있다	②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에 대해 알고 있다	③ 둘 다 알고 있다	④ 들어본 적 없다		
①	②	③	④			
직업						
공무원	196(47.2)	75(18.1)	96(23.1)	48(11.6)	415(100.0)	278.177***
복지기관 종사자	43(22.8)	53(28.0)	54(28.6)	39(20.6)	189(100.0)	
병의원 종사자	9(8.5)	47(44.3)	12(11.3)	38(35.8)	106(100.0)	
학교 종사자	13(20.0)	21(32.3)	10(15.4)	21(32.3)	65(100.0)	
학생	11(6.0)	45(24.5)	21(11.4)	107(58.2)	184(100.0)	
정치인	0(0.0)	1(33.3)	1(33.3)	1(33.3)	3(100.0)	
통반장	9(18.0)	14(28.0)	8(16.0)	19(38.0)	50(100.0)	
기타	31(9.9)	49(16.1)	24(10.6)	59(17.8)	163(13.9)	

(7) 장애인생산품 구입 의사

장애인생산품 구입 의사를 조사한 결과, 구입 하겠다라는 응답비율이 약 79% (구입 하겠다 63.4%, 적극 구입하겠다 15.8%)로 나타남. 이와 같은 결과는 직업군별로 세분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음.

<표2-49> 장애인생산품 구입 의사

항목	빈도(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적극 구입하겠다	187(15.8)	3.93 (0.667)
구입 하겠다	751(63.4)	
그저 그렇다	228(19.3)	
구입하지 않겠다	9(0.8)	
절대 구입하지 않겠다	9(0.8)	
계	1184(100.0)	

<표2-50> 직업별 장애인생산품 구입 의사

구분	장애인생산품 구입 의사					전체	X ²
	적극 구입하겠다	구입 하겠다	그저 그렇다	구입 하지 않겠다	절대 구입하지 않겠다		
직업							-
공무원	75(18.0)	268(64.3)	71(17.0)	2(0.5)	1(0.2)	417(100.0)	
복지기관 종사자	31(16.3)	138(72.6)	19(10.0)	0(0.0)	2(1.1)	190(100.0)	
병의원 종사자	12(11.3)	70(66.0)	24(22.6)	0(0.0)	0(0.0)	106(100.0)	
학교 종사자	9(13.8)	44(67.7)	11(16.9)	1(1.5)	0(0.0)	65(100.0)	
학생	22(11.9)	94(50.8)	58(31.4)	5(2.7)	6(3.2)	185(100.0)	
정치인	1(33.3)	1(33.3)	1(33.3)	0(0.0)	0(0.0)	3(100.0)	
통반장	9(17.6)	32(62.7)	10(19.6)	0(0.0)	0(0.0)	51(100.0)	
기타	28(17.20)	100(61.3)	34(20.9)	1(0.6)	0(0.0)	163(100.0)	

4) 장애인 편의시설 및 물리·사회적 환경

장애인 편의시설 필요 정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필요하다는 응답비율이 97% (꼭 필요하다 59.0%, 필요하다 37.5%)로 대부분의 응답자가 편의시설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수원시 장애인 거주 환경에 대해 조사한 결과, 도움 없이는 살기 힘들다(42.4%), 살만하다(30.9%), 잘 모르겠다(25.3%)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인 편의시설 이용 규칙은 지킨다는 비율이 약 95%(지킨다 51.9%, 지키는 편이다 43.4%)로 매우 높게 나타남.

조사 응답자의 경우 대부분 수원시에 장애인 편의시설의 꼭 필요하며, 편의시

설 이용규칙은 지키는 것으로 보임. 다만, 수원시는 장애인이 살아가는데 살만하다가 약 32%, 도움 없이는 살기 힘들다가 약 42%로 나타나 장애인 거주 환경을 더 적절하게 구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는 2010년 제2기 수원시 지역주민 복지 욕구조사에서 장애인 당사자들이 나타낸 결과와는 약간 상이한 결과임. 즉, 복지 욕구조사에서는 수원시는 평균적으로 장애인들이 살아가기에 어렵다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본 연구의 결과는 살만하다는 비율이 32%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임. 아마도 장애인 당사자의 관점과 본 연구의 응답자의 관점이 조금은 상이하게 때문일 것으로 추정됨.

<표2-51> 장애인 편의시설 및 물리·사회적 환경 1

단위: 명(%)

항목	빈도(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장애인 편의시설 필요 정도		
꼭 필요하다	697(59.0%)	3.32 (0.616)
필요하다	443(37.5%)	
필요없다	15(1.3%)	
잘 모르겠다	27(2.3%)	
계	1182(100.0%)	
수원시의 장애인 거주 환경		
매우 살기 좋다	17(1.5)	2.09 (0.783)
살만하다	362(30.9)	
도움 없이는 살기 힘들다	497(42.4)	
잘 모르겠다	296(25.3)	
계	1172(100.0)	
장애인 편의시설 이용규칙 준수 정도		
지킨다	613(51.9)	3.46 (0.612)
지키는 편이다	512(43.4)	
지키지 않는 편이다	47(4.0)	
전혀 지키지 않는다	9(0.8)	
계	1181(100.0)	

직업별로 장애인 편의시설 및 물리·사회적 환경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직업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전체 분석 결과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남.

<표2-52> 직업별 장애인 편의시설 및 물리·사회적 환경 1

구분	장애인 편의시설 필요정도				전체	X ²
	꼭 필요하다	필요하다	필요없다	잘 모르겠다		
직업						-
공무원	148(35.4)	265(63.4)	1(0.2)	4(1.0)	418(100.0)	
복지기관 종사자	74(39.4)	109(58.0)	1(0.5)	4(2.1)	188(100.0)	
병의원 종사자	34(31.5)	69(63.9)	2(1.9)	3(2.8)	108(100.0)	
학교 종사자	18(29.0)	44(71.0)	0(0.0)	0(0.0)	62(100.0)	
학생	70(38.0)	100(54.3)	8(4.3)	6(3.3)	184(100.0)	
정치인	1(33.3)	2(66.7)	0(0.0)	0(0.0)	3(100.0)	
통반장	25(47.2)	22(41.5)	2(3.8)	4(7.6)	53(100.0)	
기타	70(43.2)	85(52.5)	1(0.6)	6(3.7)	162(100.0)	
구분	수원시의 장애인 거주 환경				전체	X ²
	매우 살기좋다	살만하다	도움없이 살기 힘들다	잘 모르겠다		
직업						-
공무원	5(1.2)	162(38.9)	160(38.5)	89(21.4)	416(100.0)	
복지기관 종사자	3(1.6)	60(32.3)	86(46.2)	37(19.9)	186(100.0)	
병의원 종사자	0(0.0)	15(13.9)	55(50.9)	38(35.2)	108(100.0)	
학교 종사자	1(1.6)	12(19.4)	28(45.2)	21(33.9)	62(100.0)	
학생	5(2.8)	59(32.6)	63(34.8)	54(29.8)	181(100.0)	
정치인	0(0.0)	1(33.3)	1(33.3)	1(33.3)	3(100.0)	
통반장	0(0.0)	14(28.0)	23(46.0)	13(26.0)	50(100.0)	
기타	3(1.9)	38(23.5)	78(48.1)	43(26.5)	162(100.0)	
구분	장애인 편의시설 이용규칙 준수 정도				전체	X ²
	지킨다	지키는 편이다	지키지 않는 편이다	전혀 지키지 않는다		
직업						-
공무원	226(54.2)	173(41.5)	18(4.3)	0(0.0)	417(100.0)	
복지기관 종사자	110(58.2)	75(39.7)	1(0.5)	3(1.6)	189(100.0)	
병의원 종사자	61(56.5)	40(37.0)	7(6.5)	0(0.0)	108(100.0)	
학교 종사자	40(63.5)	23(36.5)	0(0.0)	0(0.0)	63(100.0)	
학생	68(37.2)	99(54.1)	14(7.7)	2(1.1)	183(100.0)	
정치인	0(0.0)	3(100.0)	0(0.0)	0(0.0)	3(100.0)	
통반장	22(42.3)	21(40.4)	5(9.6)	4(7.7)	52(100.0)	
기타	84(51.9)	76(46.9)	2(1.2)	0(0.0)	162(100.0)	

주1) *P<.05, ** P<.01 *** P<.001

주2) 셀의 빈도가 5미만인 경우가 20%이상이면 X²값을 제시하지 않음.

장애인 접촉 경험별 수원시 장애인 거주 환경에 대해 인식하는데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장애인 접촉 경험이 거의 없는 것보다 많을수록 도움 없이는 살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2-53> 장애인 접촉 경험별 수원시 장애인 거주 환경

구분	장애인 접촉 경험				계	X ²
	자주 있다	다소 있다	거의 없다	전혀 없다		
매우 살기 좋다	9	7	0	1	17	20.061*
살만하다	117	152	81	12	362	
도움 없이는 살기 힘들다	175	205	109	7	496	
잘 모르겠다	75	131	83	7	296	

주1) *P<.05, ** P<.01 *** P<.001

건물 신축 시,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금을 받을 경우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사가 있는지 조사한 결과 설치한다(94.2%)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수원시의 장애인 편의시설 구축 정도는 어느 정도 잘 갖추어져 있지만 개선이 필요하다(40.9%) 너무 한정된 지역, 시설로 조금 더 보급되어야 한다(36.5%)는 의견이 많음.

장애인에게 가장 시급한 시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다섯 가지 시설 모두 균형적인 비율로 나타남.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것은 건물 내 편의시설 설치 및 변경(35.9%), 장애인 인식개선(24.9%), 활동지원인(13.5%), 장애인 전용택시(11.5%)의 순으로 나타남.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에 대해서는 이동(34.2%), 취업(32.6%), 의사소통(19.3%), 사랑(10.5%)의 순으로 나타남.

<표2-54> 장애인 편의시설 및 물리·사회적 환경 2

항목	빈도(백분율)
건물 신축 시,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금을 받아 설치 여부	
설치함	1105(94.2)
설치하지 않음	68(5.8)
계	1173(100.0)
장애인에게 가장 시급한 시설(다중응답)	
사회복지시설	1031(20.7)
편의시설	997(20.0)
교통시설	1008(20.2)
문화시설	957(19.2)
교육시설	991(19.9)
계	4984(100.0)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필요한 것	
활동지원인	158(13.5)
저상버스	80(6.8)
장애인전용택시	135(11.5)
건물 내 편의시설 설치 및 변경	421(35.9)
이동보조기구개발	83(7.1)
장애인 인식개선	292(24.9)
기타	5(0.4)
계	1174(100.0)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	
이동	401(34.2)
의사소통	226(19.3)
사랑	123(10.5)
취업	383(32.6)
교육	41(3.5)
계	1174(100.0)
수원시 장애인 편의시설 구축 정도	
매우 잘 갖추어져 있다	40(3.4)
어느 정도 잘 갖추어져 있지만 개선이 필요하다	479(40.9)
너무 한정된 지역, 시설로 조금 더 보급되어야 한다	428(36.5)
아직 시설이 많이 부족한 것 같다	225(19.2)
계	1172(100.0)
장애인 편의시설 이용 경험	
있다	413(35.0)
없다	768(65.0)
계	1181(100.0)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비장애인 이용가능 범위	
이용 불가능	102(8.7)
장애인, 노인, 임산부, 어린이까지 이용 가능	715(61.0)
장애인 및 비장애인 모두 이용 가능	356(30.3)
계	1173(100.0)

직업별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것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각 직업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적으로 건물 내 편의시설 설치 및 변경과 장애인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음. 또한, 직업군별 장애인 편의시설 구축 정도를 묻는 질문에 정도별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어느 정도 갖춰져 있지만 개선이 필요함과 너무 한정된 지역, 시설로 조금 더 보급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음.

<표2-55> 직업별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것

구분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것							전체	X ²
	① 활동지원인	② 저상버스	③ 장애인전용택시	④ 건물 내 편의시설 설치 및 변경	⑤ 이동보조기구개발	⑥ 장애인 인식개선	⑦ 기타		
직업									
공무원	44 (10.6)	26 (6.3)	38 (9.1)	161 (38.7)	34 (8.2)	113 (27.2)	0 (0.0)	416 (100.0)	-
복지기관 종사자	32 (16.9)	11 (5.8)	31 (16.4)	60 (31.7)	12 (6.3)	41 (21.7)	2 (1.1)	189 (100.0)	
병의원 종사자	15 (13.9)	5 (4.6)	13 (12.0)	48 (44.4)	5 (4.6)	22 (20.4)	0 (0.0)	108 (100.0)	
학교 종사자	8 (12.7)	6 (9.5)	7 (11.1)	20 (31.7)	9 (14.3)	13 (20.6)	0 (0.0)	63 (100.0)	
학생	16 (8.6)	12 (6.5)	27 (14.7)	63 (34.2)	14 (7.6)	49 (26.6)	3 (1.6)	184 (100.0)	
정치인	0 (0.0)	1 (33.3)	1 (33.3)	0 (0.0)	1 (33.3)	0 (0.0)	0 (0.0)	3 (100.0)	
통반장	11 (22.4)	3 (6.1)	4 (8.2)	13 (26.5)	4 (8.2)	14 (28.6)	0 (0.0)	49 (100.0)	
기타	29 (18.4)	16 (10.1)	13 (8.2)	56 (35.4)	4 (2.5)	40 (25.3)	0 (0.0)	158 (100.0)	

<표2-56> 직업별 장애인 편의시설 구축 정도

구분	장애인 편의시설 구축 정도				전체	χ ²
	① 매우 잘 갖춰져 있다	② 어느정도 갖춰져 있지만 개선이 필요하다	③ 너무 한정된 지역, 시설로 조금 더 보급되어야 한다	④ 아직 시설이 많이 부족한 것 같다		
직업						-
공무원	12(2.9)	215(52.1)	132(32.0)	54(13.1)	413(100.0)	
복지기관 종사자	6(3.2)	70(37.2)	77(41.0)	35(18.6)	188(100.0)	
병의원 종사자	3(2.8)	34(31.8)	41(38.3)	29(27.1)	107(100.0)	
학교 종사자	2(3.2)	22(35.5)	25(40.3)	13(21.0)	62(100.0)	
학생	6(3.3)	72(39.1)	74(40.2)	32(17.4)	184(100.0)	
정치인	0(0.0)	0(0.0)	2(66.7)	1(33.3)	3(100.0)	
통반장	3(5.7)	20(37.7)	16(30.2)	14(26.4)	53(100.0)	
기타	8(5.1)	46(29.1)	58(36.7)	46(29.1)	158(100.0)	

장애인 접촉 경험별 수원시의 장애인 편의시설 구축 정도에 대해 분석한 결과, 접촉 경험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경우 수원시 장애인 편의시설 구축 정도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과 너무 한정된 지역, 시설로 조금 더 보급되어야 함, 아직 시설이 많이 부족하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남.

<표2-57> 장애인 접촉 경험별 수원시의 장애인 편의시설 구축 정도

구분	장애인 접촉 경험				계	X ²
	자주 있다	다소 있다	거의 없다	전혀 없다		
매우 잘 갖춰져 있다	19	13	6	2	40	21.697*
어느 정도 잘 갖춰있지만 개선이 필요하다	135	222	116	6	479	
너무 한정된 지역, 시설로 조금 더 보급되어야 한다	149	172	99	8	428	
아직 시설이 많이 부족한 것 같다	73	89	51	11	224	

주1) *P<.05, ** P<.01 *** P<.001

IV. 조사결과 요약 및 제언

1. 조사결과 요약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성별 분포는 남자(37.0%)보다 여자 (63.0%)의 비율이 높으며, 연령은 20대~40대에 주로 집중되어 있음. 자신 혹은 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보다 가족 중 장애인이 없다(84.0%)의 비율이 높았음. 최종학력은 대졸(61.6%)이 가장 많으며, 직업은 공무원 (35.1%)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복지기관 종사자(16.0%), 학생(15.6%)순으로 나타남. 근무경력은 평균 10년(120개월)이었음. 자원봉사는 경험하지 않은 사람 (45.8%)보다 경험한 사람(54.2%)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이상과 같은 결과는 조사응답자가 수원시민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각각을 대표하는 응답결과라기보다는 일정부분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음. 즉, 최종학력은 대졸이 가장 많았으며, 성별은 여성이, 직업은 공무원의 비율이, 근무경력은 평균 10년이었으며, 10년 이상 근무경력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임.

조사대상자의 장애 관련 자원봉사 경험을 살펴보면, 본인이 장애가 있거나 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나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모두 자원봉사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기혼과 미혼에서도 모두 자원봉사 경험이 있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음. 종교별로는 개신교, 천주교, 불교의 순으로 자원봉사 경험 비율이 소폭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학력이 높을수록 자원봉사 경험 비율이 경험하지 못한 비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직업군별로는 학생과 통반장을 제외한 나머지 직업군에서 모두 자원봉사 경험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상과 같은 결과는 장애관련 자원봉사는 이제 대부분의 시민(국민)들에게 익숙한 경험이거나 최소한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임.

우리나라 장애인 범주에 대한 인지 정도 결과를 살펴보면, 15개 모두를 장애인 범주로 인지한 경우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직업군

별로 인지정도의 차이는 공무원, 복지기관 종사자, 병원 종사자 즉, 장애(인)와 직·간접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환경에 종사하는 영역에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음. 그리고 자원봉사 경험이 있는 경우 장애인 범주 15개 모두를 인지하고 있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상과 같은 결과는 조사 응답자들이 15개 장애범주를 모두 인식하는 비율이 일반 국민들의 인지정도에 비하여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기에 본 조사의 응답자들의 장애 인지적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추정됨. 또한, 본인이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가족구성원 중 장애인 여부가 장애 범주를 정확하게 인식하는데 영향을 주기 보다 직·간접적으로 장애(인)를 접촉하는 환경에 종사하는 직업이 장애범주를 정확하게 인지하는데 영향을 더 많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 본인이나 가족구성원에 대한 정확한 정보전달이나 인식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장애인 접촉 경험은 조사응답자의 대부분이 접촉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또한 장애인 접촉 경로는 주로 직장, 봉사활동, 주변 이웃이나 친구 순으로 나타남. 이상과 같이 직장에서의 접촉 경험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결과 또한, 본 조사의 응답자들의 특성을 나타낸 결과라고 보임. 장애인 접촉 경험을 조금 더 세분하여 살펴본 결과, 성별, 연령, 종교, 학력, 직업군 모두에서 장애인 접촉 경험 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장애인에게 도움 줄 의향이 있는지 분석한 결과, 도움을 줄 의향이 있다가 높게 나타남. 한편 장애인에게 도움 줄 의향이 있으나 방법을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도 낮지 않음. 직업군별로 장애인에게 도움 줄 의향이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학생을 제외한 모든 직업군에서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상과 같은 결과는 학생들에게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 학생들의 응답결과는 대체로 부정적인 응답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이들에 대한 접근이 절실함을 나타내고 있는 결과로 보임.

장애인 시설 건립에 대한 의견을 분석한 결과, 응답자 대부분이 설립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장애인 시설 건립에 대한 의견이 장애인 접촉 경험에 따라 다른지 분석한 결과, 장애인 접촉 경험이 거의 없는 것보다 다소 혹은 자주 있는 경우 장애인 시설 건립에 동의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상과 같은 결과는 장애인 접촉 경험이 많을수록 장애인에 대한, 또는 장애인을 돕는 시설에 대한 거부감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는 결과임. 따라서 자원봉사, 인식개선 교육 등을 통한 접촉 경험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함.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필요정도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대부분이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은 시기는 교육을 전혀 받지 않았다가 가장 많았음.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효과적인 교육방법은 장애체험이 압도적으로 많았음. 적절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시기에 대한 결과, 주로 초등교육 이내 교육 받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상과 같은 결과로 장애 인식 교육은 대부분 필요함을 느끼며, 교육을 받을 시기로는 초등교육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효과적인 교육방법으로는 장애체험을 가장 높게 응답하고 있는데 이 방법의 효과성과 영향력에 대해 장애인 당사자와 비장애인들의 의견이 나뉘고 있어서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연령별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받은 시기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연령대가 어릴수록 유치원 및 그 이전 혹은 초, 중등 교육 때 인식교육을 받은 것으로, 40대 이상의 경우에는 인식교육을 받지 않거나 성인교육(평생교육)때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이상과 같은 결과는 최근에 들어와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어린 연령대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하며, 성인 특히 40대 이상의 경우에는 성인교육을 통해 인식개선이 이루어지기에 성인교육 실시 때 올바른 장애인식 교육이 진행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한편, 19세 이하의 경우 이미 중등교육 이전에

인식개선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응답비율을 보이고 있음도 동시에 알 수 있음. 이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중등학교 이전까지의 인식개선 교육이 어느 정도 효과적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연령별 그리고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은 시기별로 적절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시기가 언제라고 생각하는지 교차분석 결과, 현 연령대, 교육을 받은 시기의 다름에 관계없이 모두 초등교육 내 까지 장애인식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음.

장애인과 함께 교육 받는 것, 단체생활(직장, 학교, 동아리활동, 사회활동 등)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음. 장애인과 결혼 할 의향이 있는지 분석한 결과, 부정적인 견해가 강한 것으로 나타남. 장애인 접촉 경험별로 함께 교육 받고 단체생활 하는 것에 대한 생각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장애인 접촉 경험이 있을수록(많을수록) 함께 교육받는 것과 단체생활 하는 것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상과 같은 조사결과는 장애인 접촉 경험이 많을수록 단체(교육 포함)구성원으로 받아드릴 비율이 높음을 나타내고 있음. 따라서 장애인 접촉 경험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장애인 접촉 경험별로 장애인과 결혼 할 의향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에서도 비슷한 것을 알 수 있음. 즉, 장애인 접촉 경험이 많을수록 결혼 의향이 높게 나타났음. 이는 장애인을 접촉하는 경험이 많아질수록 장애인에 대한 거부감이나 배제하려고 하는 인식 정도가 낮아진다는 것과 사회구성원의 일부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비율이 높음을 나타내는 결과로 볼 수 있음.

수원시 장애인 복지제도 수준에 대해 분석한 결과, 미흡하다가 가장 높게 나타남. 미흡한 이유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이 과반수를 넘는 것으로 나타남. 수원시 장애인 복지제도 수준에 대하여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연령, 장애인 본인 또는 가족 중 장애인 유무, 자원봉사 경험 유무, 직업군별로 모두 동일하게 수원시 장애인 복지제도 수준이 미흡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잘 되어 있다고 응답한 비율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남.

이 같은 결과는 본 연구의 조사응답자들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장애인 복지 체감수준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볼 수 있음.

장애관련 정보 접근 경로에 대해 분석한 결과, 주로 텔레비전, 라디오와 같은 매스컴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본인이 종사하는 업무를 통해, 봉사활동 또는 장애인 관련단체를 통해서 얻는 것으로 나타남. 직업별 장애관련 정보 접근 경로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공무원과 학교 종사자, 학생의 경우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등 매스컴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 비율이 높은 반면, 복지기관 종사자나 병의원 종사자 등은 봉사활동 또는 장애인 관련 단체를 통해서나 본인이 종사하는 업무를 통해서 정보를 얻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결과 또한 본 연구의 응답대상자들의 특성을 일정부분 나타내고 있으며, 공무원이나 학교 종사자, 학생 등을 일반 시민으로 인정한다면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매스미디어를 통한 정보 전달이나 교육 등이 필요함을 나타내고 있음.

가족 중 장애인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조사한 결과, 많이 힘들어 하겠지만 장애를 받아들이고자 노력할 것이다가 가장 많았으며, 직업별 장애 발생에 대한 생각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대체로 많이 힘들어 하겠지만 장애를 받아들이고자 노력할 것이다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으며, 절망하며 살고 싶지 않을 것이라는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들은 비슷한 응답 비율을 보이고 있음.

이러한 조사 결과는 장애발생에 대한 운명적인 시각이나 신의 처벌 또는 비극적 관점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관점으로 변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물론, 본 조사의 응답자들의 특성을 감안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음.

인식개선 교육을 받은 시기별로 가족 중 장애인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생각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받은 시기에 따라 가족 중 장애인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 고루 분포되고 있음. 이러한 분포 사항이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일정한 경향성을 알 수 없음.

결국, 인식개선 교육과 장애에 대한 생각은 그리 큰 상관성이 없으며, 장애 발생에 대한 생각은 개별적인 특성에 결정되는 것을 알 수 있음. 따라서 장애인식 개선 교육 내용에 장애에 대한 진일보한 시각을 갖출 수 있도록 교과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장애인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다중응답 분석한 결과, 일자리 부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사회적 차별, 경제적 어려움, 편의시설 부족의 순으로 나타남.

이상과 같은 결과는 2010년도에 수행된 제2기 수원시 지역주민 복지 욕구조사에서 조사된 결과와는 부분적으로 동일한 결과이지만 세부적으로는 상이함. 즉, 2010년도 조사에서 장애인 당사자들은 가장 큰 어려움으로 생활상의 어려움(경제적인 어려움)을 들었음. 일자리 부족이라는 항목과 경제적 어려움 항목이 크게 보면 비슷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세부적으로 이미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항목을 제시하였기에 본 조사에서는 다른 항목으로 구분되어진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장애인 당사자가 지목한 조사 결과와는 상이한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것임.

또한, 사회적 차별이라는 항목 응답이 비교적 높은 비율로 나타난 것은 2010년도 조사와 비슷한 결과이지만, 세부적으로 검토할 때, 2010년도 조사에서는 이러한 차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사회적 배려의 제도화(즉, 경제적 지원, 의료적 지원 등)를 요구하였음. 즉, 장애특성으로 인하여 차별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미 인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도적인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함을 언급하였었음. 따라서 장애인이 겪는 어려움을 피상적으로 유추하는 것과 실제 생활에서 겪는 당사자들의 응답 내용에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됨.

설문 응답 후 장애인에 대한 인식 변화를 분석한 결과, 조금의 관심이 생겼다고 지속적으로 장애인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성을 느꼈다가 많으며, 적극적으로 장애인 문제에 관심을 갖고 돕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반해 여전히 관심 없다 역시 낮지 않은 비율로 나타남. 이러한 경향성은 직업군별로 세분

하여 검토한 결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음. 결국,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서든 장애(인)로 인한 여러 내용이나 정보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필요가 있음.

장애인의 직업 능력에 대한 조사한 결과, 비장애인보다 낮거나, 비장애인과 동등하다에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일한 근무 조건일 때 급여수준은 어느 정도 받아야 하는지 조사한 결과,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받아야 한다와 비장애인만큼은 아니지만 최저임금 이상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음. 직업별 장애인 직장동료와 일하는 것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있는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일근무 조건 시, 장애인 급여수준에 대한 생각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응답 형태와 비슷하게 나타났음.

이러한 응답결과는 연령, 장애 가족 구성원 유무, 자원봉사 유무, 직업군별로 각각 상이한 응답결과를 가지고 있다거나 특성 있는 결과가 도출된다고 보기 보다는 일반적인 생각이나 의견이 종합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임.

장애인 직업훈련이 장애인의 취업에 도움이 되는 정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주로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직업별로 장애인 직업훈련이 장애인의 취업에 도움이 되는 정도에 대해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도움이 된다는 응답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남. 장애인 취업이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기업의 장애인 고용 의지 부족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사회적 책임의식 부족, 직무의 적정성의 문제, 직장 동료와 상호관계의 문제 순으로 나타남.

장애인 고용을 위해 우선 해결되어야 할 것에 대해 조사한 결과, 고용주의 긍정적 장애인식 개선, 고용촉진법 강화를 통한 장애인 의무고용을 확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및 일자리 확대의 순으로 나타남. 이러한 응답결과는 직업군별로 세분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도 비슷한 패턴으로 나타나고 있음.

수원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더 많이 설치되어야 하는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취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 증축 필요성의 경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매우 높았음.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 및 장애인의무고용 인지 정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들어본 적 없다는 가장 많았음. 직업별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 및 장애인의무고용제도 인지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두 가지 모두를 다 알고 있는 직업은 복지기관 종사자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물론, 정치인의 경우 빈도가 너무 낮은 관계로 논외로 하였음), 공무원을 제외하고서 나머지 직업군에서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에 대한 인지 정도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인지정도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공무원의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인지보다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인지 정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이와 같은 결과는 수원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음. 즉, 2012년도에 수행된 장애인 교육, 복지제도 16개 시,도 비교(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서 경기도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에 비하여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는 경기도 전체의 장애인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시각과 관점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가 각 지자체의 장애인복지 흐름을 좌우함을 동시에 알 수 있는 결과임.

장애인 편의시설 필요 정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대부분 필요하다고 응답함. 또한 수원시 장애인 거주 환경에 대해 조사한 결과, 도움 없이는 살기 힘들다, 살만하다, 잘 모르겠다의 순으로 나타났음. 조사 응답자의 경우 대부분 수원시에 장애인 편의시설의 꼭 필요하며, 편의시설 이용규칙은 지키는 것으로 보임. 다만, 수원시는 장애인 거주 환경을 더 적절하게 구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는 2010년 제2기 수원시 지역주민 복지 욕구조사에서 장애인 당사자들이 나타낸 결과와는 약간 상이한 결과임. 즉, 복지 욕구조사에서는 수원시는 평균적으로 장애인들이 살아가기에 어렵다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본 연구의 결과는 살만하다는 비율이 32%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임. 아마도 장애인 당사자의 관점과 본 연구의 응답자의 관점이 조금은 상이하게 때문일 것으로 추정됨.

장애인 접촉 경험별 수원시 장애인 거주 환경에 대해 인식하는데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장애인 접촉 경험이 거의 없는 것보다 많을수록 도움 없이는 살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건물 신축 시,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금을 받을 경우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사가 있는지 조사한 결과 설치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수원시의 장애인 편의시설 구축 정도는 어느 정도 잘 갖추어져 있지만 개선이 필요하다, 너무 한정된 지역, 시설로 조금 더 보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음.

직업별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것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각 직업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적으로 건물 내 편의시설 설치 및 변경과 장애인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음. 또한, 직업군별 장애인 편의시설 구축 정도를 묻는 질문에 정도별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지만 개선이 필요함과 너무 한정된 지역, 시설로 조금 더 보급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음. 장애인 접촉 경험별 수원시의 장애인 편의시설 구축 정도에 대해 분석한 결과, 접촉 경험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경우 수원시 장애인 편의시설 구축 정도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과 너무 한정된 지역, 시설로 조금 더 보급되어야 함, 아직 시설이 많이 부족하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남.

2. 제 언

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음.

첫째, 장애인 관련 자원봉사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된 것으로 보임. 다만, 장년층을 위한 자원봉사의 내용과 접근방법에 대한 개발이 필요함.

둘째, 직·간접적으로 장애(인)를 접촉하는 환경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장애인에 관한 정보와 인식 정도가 높았고 장애인 관련 접촉 경험이 많을수록 장애인을 사회구성원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을 볼 때, 자원봉사, 인식개선 교육 등의 접촉환경이 많아질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셋째, 장애인식 개선 교육은 꼭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을 볼 때, 장애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비극적, 운명적) 시각에서 벗어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장애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인식개선 교육이 필요함.

넷째, 수원시 장애인 복지제도의 수준은 미흡하며, 미흡한 이유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이라고 응답하는 것을 볼 때, 수원시 장애인 복지제도를 확대, 확장시킬 필요가 있음. 특히, 2010년 수원시 지역주민 복지 욕구조사의 결과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배려(경제지원, 장애인 가족 지원, 이동권 보장, 자립지원 강화 방안 등)의 제도화와 이러한 제도들의 확대와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다섯째, 일반 시민들이 매스미디어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으로 조사된 결과를 볼 때, 지방과 중앙 등의 매스미디어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특히, 미담이나 장애극복 스토리를 통한 왜곡된 정보 전달이 아닌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이고 일반적인 개념 정의나 사회구성원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홍보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여섯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더 필요하며, 직업훈련이 취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응답결과를 통해 검토할 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확충과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일곱째, 장애인 편의시설 구축이 필요하며, 현재 수원시의 장애인 편의환경은 도움 없이는 살기 힘들다는 응답결과를 통해 볼 때, 장애인이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장애인 편의시설 구축 확대가 이루어져야 함.

부 록

수원시민 장애인식조사 설문지

장애인분과 위원 명단

참여 연구진

수원시민의 장애 관련 인식도 조사

안녕하십니까?

귀하와 귀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수원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장애인분과에서는
 “누구나 살고 싶은 무장애도시 수원”의 비전을 가지고
 수원시 장애인에 대한 전반적 인식 정도를 조사하고자 합니다.
 이 자료는 편견과 차별의 턱을 허물고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는 장애 없는 사회 환경 조성의
 기초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수원시의 사회복지 발전과 시민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귀하의
 의견을 성심껏 응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귀하께서 응답해주신 모든 내용은 통계법 제7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분석 자료로만 활용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06월

수원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장애인분과

최종열 (수원시 장애인복지팀장)

허미자 (한국장애인부모회 수원시지회 감사)

양희택 (경기복지재단 책임연구원 / 장애인분과 자문위원)

백민희 (경기복지재단 연구원)

일반적 사항에 대한 질문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 ② 여

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19세 이하 ② 20-29세 ③ 30-39세 ④ 40-49세 ⑤ 50-59세 ⑥ 60세 이상

3. 귀하의 가족 구성원 중 장애를 갖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 ① 자신이 장애가 있다 ② 가족 구성원 중 장애인이 있다 ③ 장애인 없음

4. 귀하의 결혼 여부는?

- ① 기혼 ② 미혼 ③ 이혼 및 별거 ④ 사별 ⑤ 기타

5. 귀하의 종교는?

- ① 개신교 ② 불교 ③ 천주교 ④ 무교 ⑤ 기타()

6.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고졸(중퇴포함)이하 ② 고졸(중퇴포함) ③ 대졸(전문대, 중퇴포함)
④ 대학원이상 ⑤ 무학

7. 현재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 ① 공무원 ② 복지기관 종사자 ③ 병원 종사자 ④ 학교 종사자
⑤ 학생 ⑥ 정치인 ⑦ 통반장 ⑧ 기타

8. 귀하의 총 근무경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년 ()개월

9. 귀하의 주거형태는 어떠하십니까?

- ① 자가 ② 전세 ③ 월세 ④ 무상 ⑤ 기타()

10. 장애관련 자원봉사 경험이 있으십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장애인식 및 장애 관련 일반적 사항에 대한 질문

1. 우리나라 장애인 범주는 다음의 표에서 모두 몇 개나 될까요? (개)

- ① 지체장애 (절단, 관절, 지체기능, 변형 등) ② 뇌병변장애 (중추신경 손상)
③ 시각장애 (시력, 시야결손) ④ 청각장애(청력, 평형기능)
⑤ 언어장애(언어, 음성) ⑥ 안면장애(안면주위추상, 함몰, 비후등의 변형)
⑦ 심장장애(만성신부전증 및 신장이식자) ⑧ 심장장애(심장기능 이상)
⑨ 호흡기장애(만성·중증의 호흡기 기능이상) ⑩ 간장애(만성·중증의 간 기능이상)
⑪ 간질장애(만성·중증의 간질) ⑫ 장루·요루장애(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 요루)
⑬ 지적장애(정신지체·지능지수 70이하인 경우) ⑭ 정신장애(정신분열, 분열정
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우울장애) ⑮ 자폐성장애(발달장애·자폐증)

2. 귀하가 지금까지 장애인과 직접 접촉(애매, 우연포함)한 경험은 어느 정도 입니까?

- ① 자주 있다 ② 다소 있다 ③ 거의 없다 ④ 전혀 없다

2-1. 있으시다면(복수 선택 가능)

- ① 가족이나 친척 ② 주변 이웃이나 친구 ③ 봉사활동 ④ 실습
⑤ 교육 ⑥ 직장 ⑦ 기타

3. 귀하는 장애인에게 도움을 줄 의향이 있습니까?

- ① 적극있다 ② 있다 ③ 있으나 방법을 모른다 ③ 없다 ④ 전혀없다

4. 장애인을 도와 준 경험이 있다면 모두 체크해주세요. (단, 장애인시설 종사자로서 도움을 주는 경우는 제외)

- () ① 버스/지하철/기차 등에서 자리를 양보한 일
- () ② 횡단보도나 계단 등에서 장애인의 손을 잡아준 일
- () ③ 휠체어를 밀어준 일
- () ④ 가사나 물건사기를 도와준 일
- () ⑤ 목욕이나 몸을 돌봐준 일
- () ⑥ 말동무 해준 일
- () ⑦ 수어(수화)나 글을 읽어주는 등의 봉사활동
- () ⑧ 모금이나 기부
- () ⑨ 모금, 기부 이외의 금전적, 경제적 원조
- () ⑩ 기타(적어주세요)

5. 귀하는 장애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실과 정보들을 어느 경로로 알게 되셨습니까?

- ① T.V, 라디오, 신문, 잡지 등 매스컴을 통해서
- ② 선생님들의 장애인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 ③ 부모님의 장애인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 ④ 이웃, 친구들을 통해서
- ⑤ 봉사활동 또는 장애인 관련 단체를 통해서
- ⑥ 본인이 종사하는 업무를 통해서
- ⑦ 기타()

6. 만약 귀하 또는 귀하의 가족 구성원이 장애인이 된다면?

- ① 생각하고 싶지도 않다
- ② 절망하며 살고 싶지 않을 것이다
- ③ 많이 힘들어 하겠지만 장애를 받아들이고자 노력할 것이다
- ④ 다소 불편한 일이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이다
- ⑤ 장애를 수용하고 적극 재활할 것이다

7. 장애인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3개만 골라주세요.

- ① 사회적 차별 ② 일자리 부족 ③ 편의시설 부족
- ④ 경제적 어려움 ⑤ 교육시설 부족 ⑥ 문화생활 문제
- ⑦ 기타()

8. 거주지 근처에 장애인 시설이 세워지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① 동의한다 ② 반대한다

8-1. 반대한다면 그 이유는?

- ① 불편해서 ② 위험할 것 같아서 ③ 부동산 시세가 떨어질 것 같아서
- ④ 싫어서 ⑤ 기타 ()

9. 귀하나 귀하의 가족이 장애인과 함께 교육 받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적극 찬성한다 ② 찬성한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반대한다 ⑤ 적극 반대한다

10. 장애인과 함께 단체생활(직장, 학교, 동아리활동, 사회활동 등)을 할 기회가 생긴다면?

- ① 아주 긍정적이다 ② 긍정적이다 ③ 보통이다 ④ 부정적이다
- ⑤ 아주 부정적이다

11. 귀하는 장애인과의 결혼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 기꺼이 한다 ② 다시 생각해 본다 ③ 상관없다 ④ 안한다
⑤ 절대 안한다 ⑥ 모르겠다

12.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필요하다 ② 어느 정도 필요하다 ③ 필요하지 않다. ④ 모르겠다

13. 귀하는 인식개선 교육을 언제 받았습니까?

- ① 유치원 교육 및 그 이전 ② 초등교육 ③ 중등교육 ④ 대학교육
⑤ 성인교육(평생교육) ⑥ 전혀 받지 않았다

14. 장애인식교육을 시작한다면 어느 시기가 제일 적절하겠습니까?

- ① 유치원이전 교육 ② 유치원 교육 ③ 초등교육 ④ 중등교육
⑤ 대학교육 ⑥ 성인교육(평생교육)

15. 장애인식개선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교육방법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장애체험 ② 이론교육 ③ 캠페인 ④ 모금활동
⑤ 책자발행 ⑥ 매스미디어 ⑦ 기타()

16. 우리 지역의 장애인 복지제도 수준은 어떠합니까?

- ① 아주 잘 되어있다 ② 약간 잘되어있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미흡하다 ⑤ 아주 미흡하다

16-1 미흡하다면 그 원인은?

- 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부족 ② 정부의 의식 부족 ③ 예산 부족
④ 장애인의 참여 부족 ⑤ 개인 또는 지역 이기주의 ⑥ 기타()

17. 장애인식도 조사로 인해 귀하의 장애인문제 관심은 어떻게 변했나요?

- ① 전혀 관심 없으며 성가시고 귀찮다
② 형식적으로 대답은 했지만 여전히 관심은 없다.
③ 조금의 관심이 생겼다
④ 지속적으로 장애인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성을 느꼈다.
⑤ 적극적으로 장애인 문제에 관심을 갖고 돕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다.

장애인 직업재활 및 고용에 대한 질문

1. 평소 장애인의 사회참여(직업, 문화, 정치 등)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셨습니까?
① 매우 긍정적이다 ② 긍정적이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부정적이다
⑤ 매우 부정적이다

2. 장애인의 직업 능력은 어떠하다 생각하십니까? (직무형태가 동일한 경우)
① 비장애인보다 매우 높다 ② 비장애인보다 높다 ③ 비장애인과 동등하다
④ 비장애인보다 낮다 ⑤ 비장애인보다 매우 낮다

▶ 2 번 문항의 답을 선택한 이유를 적어주세요.

3. 장애인의 직업(교육)훈련은 취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도움이 된다 ② 조금 도움이 된다 ③ 보통이다
④ 도움이 안 된다 ⑤ 전혀 도움이 안 된다

4. 장애가 있는 직장동료와 함께 일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긍정적이다 ② 긍정적이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조금 불편한 일이다 ⑤ 매우 불편한 일이다

5. 장애인 고용 시 동일한 근무 조건이라면 급여 수준은 어느 정도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받아야한다
② 비장애인만큼은 아니지만 최저임금 이상으로 받아야한다
③ 최저 임금 수준이어야 한다
④ 최저 임금보다 적게 받아야한다
⑤ 사회참여만 이뤄진다면 임금 수준은 중요하지 않다

6. 장애인 취업이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 선택)
() ① 기업의 장애인고용 의지 부족
() ② 장애 당사자의 취업 의지 부족
() ③ 사회적 책임의식 부족
() ④ 직장 동료와 상호 관계의 문제

- () ⑤ 직무의 적정성의 문제
() ⑥ 직업훈련(교육) 부족
() ⑦ 기업에 특성에 따른 안전성의 문제
() ⑧ 이동(교통)의 문제
() ⑨ 편의시설 및 장비의 부족
() ⑩ 기타 ()

7.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우선 해결되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 ① 고용촉진법 강화를 통한 장애인 의무고용율 확대
- ② 장애인 스스로의 취업의지 고취
- ③ 고용주의 긍정적 장애인식 개선
- ④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보호작업장) 및 일자리 확대
- ⑤ 장애인 직업교육(훈련) 강화
- ⑥ 기타 ()

8. 수원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더 많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어느 정도 그렇다 ③ 모르겠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9. 중증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장애인 직업교육 및 훈련, 취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어느 정도 그렇다 ③ 모르겠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10.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 및 장애인의무고용제도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 ①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에 대해 알고 있다
- ②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에 대해 알고 있다
- ③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 및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둘 다 알고 있다
- ④ 들어 본 적 없다

11. 중증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하고 있는 장애인생산품(청소용역, 카페운 영, 빵·쿠키, 채소, 공산품제조 등)을 구입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 ①적극 구입하겠다 ② 구입하겠다 ③그저 그렇다 ④ 구입하지 않겠다
⑤절대 구입하지 않겠다

12. 귀하가 사업주라면 장애인을 고용하겠습니까?

- ① 고용하겠다
② 고용하지 않겠다 (이유는?)

장애인 편의시설 및 물리·사회적 환경에 대한 질문

설문을 돕기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의 종류

- | | | |
|---------------|-----------|-------------|
|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 ◇ 점자블록 | ◇ 엘리베이터 |
| ◇ 주출입구 높이차 제거 | ◇ 경사로 | ◇ 지하철 리프트 |
| ◇ 장애인 화장실 | ◇ 계단 핸드레일 | ◇ 신호등 음성신호기 |

-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에 대해 귀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① 필요하다 ② 꼭 필요하다 ③ 필요 없다 ④ 잘 모르겠다
-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이동 ② 의사소통 ③ 사랑 ④ 취업 ⑤ 교육
- 수원시는 장애인이 살아가는 데 어떠하다고 생각되십니까?
 ① 매우 살기 좋다 ② 살만하다 ③ 도움 없이는 살기 힘들다 ④ 잘 모르겠다
- 장애인을 위한 편의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잘 갖추어져 있다
 ② 어느 정도 잘 갖추어져있지만 개선이 필요하다
 ③ 너무 한정된 지역, 시설로 조금 더 보급되어야 한다
 ④ 아직 시설이 많이 부족한 것 같다
- 귀하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이용해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② 없다
- 비장애인으로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 이용가능 범위는 어디까지 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장애인만 이용가능
 ② 장애인-노인-임산부-어린이까지 이용 가능
 ③ 장애인 및 비장애인 모두 이용가능

7. 장애인 편의시설(장애인 외 주차금지 구역 등) 관련 규칙을 지키고 계십니까?
 ① 지킨다 ② 지키는 편이다 ③ 지키지 않는 편이다 ④ 전혀 지키지 않는다
8. 장애인들에게 가장 중요하거나 시급한 시설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순위를 매겨주세요)
 () ① 사회복지시설
 () ② 편의시설
 () ③ 교통시설
 () ④ 문화시설
 () ⑤ 교육시설
9. 만약 귀하가 건물 주인이시라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편의시설
 (경사로)지원금을 지원 할 때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시겠습니까?
 ① 설치하겠다 ② 설치하지 않겠다
10. 장애인의 이동할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① 활동지원인
 ② 저상버스
 ③ 장애인전용택시
 ④ 건물구조(경사로, 장애인화장실, 장애인 전용석, 점자블럭 등) 변경
 ⑤ 이동보조기구개발
 ⑥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⑦ 기타 ()

장애인분과 위원 명단

번호	구 분	성 명	소 속
1	위원장	최중열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장
2	위원장	허미자	한국장애인부모회 수원지부 감사
3	총 무	김장수	연무사회복지관 팀장
4	위 원	강정운	수원시오목천동장애인보호시설 팀장
5	위 원	김유라	수원시정신보건센터 팀장
6	위 원	김범진	엘림작업활동시설 시설장
7	위 원	박성자	노인장애인과 요양보장팀 주무관
8	위 원	조은아	국민연금공단 수원지사 장애인지원센터 차장
9	위 원	원종임	수원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팀장
10	위 원	권미정	수원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 팀장
11	위 원	이영설	한사랑복지센터장
12	위 원	김희준	중앙침례교회 복지사역국 전도사
13	위 원	한미옥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 주무관
14	위 원	김덕현	브솔복지재단 행정실장
15	위 원	임채성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수원지회 사무국장
16	위 원	하창우	영통종합사회복지관 가족복지팀장
17	위 원	김정숙	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 사례관리전문가
18	위 원	성연규	무봉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19	위 원	김희옥	수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 팀장
20	위 원	이순찬	새봄사회복지시설 팀장
21	담 당	임복희	수원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팀장

참여 연구진

구 분	성 명	소 속
책임연구자	양희택	경기복지재단 책임연구원
공동연구자	백민희	경기복지재단 연구원

수원시민의 장애인식 조사 보고서

발 행 일 : 2012. 10. 18

발 행 처 : 수원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로 768

전 화 : 031) 898-9851~4

팩 스 : 031) 248-1906

홈페이지 : <http://www.swwelfare.org/>